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6.9

지/역/사/의/목/약/△/원/집/의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23-41 여성문화의 집 3층 (우) 100-631 ☎ 02)275-6505 FAX 275-6506 ID:G7Y10(성리민)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전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전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해드립니다.

KDIR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서울 중구 옥정동 18-27 대현문화원 426호 · TEL. 02)268-3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DIRBEBO(아이텔) ZP:BB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호출 9.96

96.9



자/역/사/외/국/어/인/문/학/역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ID:GTIID(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6.9월호

<통권 43호>



<표지사진>

이번 표지사진은 본회 부산지역
위원회의 김향진님(꽃돌나라)께
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얀 아이의 얼굴이 밝은 마음
을 나타내주는 듯해서 보는 이
의 기분도 밝아집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담은 사
진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은 편집부로 연락하시면
표지사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진 / 김향진)

일하며 생각하며 / 3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를 요구하십시오

박금희

성평등 교육 / 5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기 성찰

조선헌

보육대회 참관기 / 14

일본 전국 보육대회를 다녀와서

임남희

어린이집 식단 / 17

가을철 어린이집 식단

오경민

전통육아 / 19

전통육아 바로 알기

조인숙

국악교육 참관기 / 25

굿거리 장단을 아는 아이들

오윤정

좋은 그림책 소개 / 29

우락부락 염소 새형제 이야기

고영미

보육조례안 / 31

서울시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장희재 / 35

성황리에 끝마친 제2회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편집부

짜·임·새

작은 계획 / 38

장난감 상담전화

적성경연 / 39

여성복지예산의 현황 및 개선방향

건강하게 삽시다 / 50

어린 아이의 풍예 대하여(1)

세상읽기 / 55

눈물 젖은 8.15

육아일기 / 57

유빈이의 육아일기, 그 첫번째

박익스별곡 / 59

다우리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백팔놀이 / 61

무궁해 여름캠프를 가는 아이들

오려들의 목소리 / 64

애들아, 사랑해!

보육계풍향 / 65

소식과 소식 / 67

편집부에서 / 69

1996년 9월호(통권 43호)/첫발행 1992
년 5월 25일/매년 5월 지역사회복지아소연
합회/매년 5월 남미영/목은이 박정애, 강
예란, 황미혜/매년 9월 2일

일하며 생각하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를 요구하십시오

박금희 / 안산시 보육정보센터 보육지도원

결음이 바빠지는 계절, 지탁연 식구들과의 만남이 한숨 돌릴 여유를 줍니다. 반갑습니다. 늘 수다로 풀다보니 이렇게 글로 만나 이야기하기가 영 쑥스럽습니다. 우리 수다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넌 어때니?” “너희 어린이집은 무슨 문제니?” “너네 지역은 뭘 하니?” ... “아, 그렇구나!” “와, 우리랑 함께 하자!” ...

이런 수다가 우리 활동 나누기에는 가장 적합한 건데 지면이란 것이 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갑습니다. 또 요즈음은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정보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전 보육정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일하시는 지역에는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도 알려주십시오. 하지만 보육정보센터가 정보를 쌓아놓고 독식하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시·군·구에 가장 시급한 보육정책은 무엇이며,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 엄마아빠들에게 절실한 요구와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형태의 사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센터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보육활동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저희 시에 강하게 요구하였고 또 요구가 받아들여져 직접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가 처음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하던 1991년도 즈음에는 보육시설의 수도 적었고 또 지역위원회를 통해 보육프로그램, 운영의 원칙과 방법, 행사, 자원활동가와 후원자의 관리 등 모든 것이 연구되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요구와 처지가 다양해지고 주위에 보육시설이 늘어나면서 운영은 어려운 전공화 영역으로 떠오르고 점차 사그라드는 보육에의 관심과 후원자, 자원활동가의 관리가 부담되고 무엇보다도 종일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보육의 질에 대한 위기와 책임감은 무거워지는 반면, 교사로서의 나를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자체였습니다.

시설의 운영에서 보육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전문성은 우리 스스로를 숨릴 틈 없이 움

직이도록 몰아칩니다. 이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각 시설의 연구는 물론이고 지역위원회를 통한 해결이라는 것에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하물며 민간보육시설에서 만나는 다른 시설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교사들이 풍부하고도 올바른 내용으로 아이들과 자신감있게 만나는 현장,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쑥쑥 크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아니 그런 관계와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이제는 이를 가능케 하는 지원체제와 기구를 요구해야 하며, 바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이 그 한 방안이란 확신이 저의 5년간의 보육시설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96년도 2월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저희 센터의 경우 아직 내놓으라 할만한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인력도 장비도 장소도 아직은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공무원의 절대적인 이해부족, 교사들과 시민들에 대한 홍보부족, 센터 인력의 경험 부족 등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러나 극복 안될 한계가 아니기에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센터는 개소 이후 교사에 대한 요구조사와 부모대상 시설이용의 만족도 조사 등 두차례의 조사작업과 식단의 제공-영양사 업무, 국악교육, 아동미술의 주제로 3-4개월 과정의 소모임 형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 적은 예산이지만 도서를 구입하여 이후 교사들 대상으로 도서대출과 교육토론회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시설과 교사들에게 제공될 교재개발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교사들이 신명나게 공부하고 활동하며, 보육시설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게 바로 교육운동이고 교사운동 아닙니까?

지금 바로 시·도, 시·군·구의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를 요구하십시오.



성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기 성찰

조선경 / 본회 교육연구부원

아동의 초기 사회화를 담당하는 최초의 공식 기관인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로서 우리는 아동을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일임을 모두 알고 있다. '92년에 아동권 토론회를 통해 다룬 바 있던, 지탁연의 교육목표 중의 하나인 성평등 교육이라는 주제를 그래도 남들(일반적인 교육기관)보다는 잘 실천해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일반적인 유아교육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역할 사회화는 사회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유지·강화시키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95년 전국의 100개 어린이집과 유치원, 3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역할 관련 교육을 하고 있으며(유치원 77.6%, 어린이집 89.6%), 교육의 목적은 "유아들이 자신의 성에 따라 성역할을 한정짓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라고(유치원 81.6%, 어린이집 85.7%) 응답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성역할 교육의 실태는 이런 응답과는 상반되는 것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즉, 교사 자신들이 평가하는 성역할 의식과 유아와의 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태도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며 이는 성역할이라는 문제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의식과 실제간의 괴리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일차적인 대답으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 의식, 남성 우월주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성역할 고정관념이 이미 성인이 된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아, 교사이기 이전에 여성인 우리의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설명은 물론 첫번째 요인의 영향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도 한데, 교사들이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사용해 온 언어, 선택된 교재에 내포되어 있는 또 다른 교육적 의미

등이 형성하고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의식하지 못하고 둔감하다는 것이다. 즉 교육활동이라고 명명된 활동에 있어서의 교재 선택이나, 일상적 일과 중에서 아동과 사적으로 나누는 대화에서나 숨겨진 성역할에 대한 의식이나 기대가 아동에게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작용하여 교사는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는 그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성별에 따른 역할기대의 차이가 줄어들고 남녀가 좀더 평등한 관계를 갖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러운 추세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기존 사회질서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기능적인 성격도 있지만, 현실을 개혁할 수 있는 진보적 가능성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교육과 교사의 자기 성찰이라는 주제를 함께 묶어서 접근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성평등 교육은 동화를 한번 들려주거나 하는 일회적인 시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한 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온전한 인간됨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자각과 함께, 교사의 의식적인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교사가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태도와 언행)을 되돌아보고 아동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의 근원을 찾아 분석하고 해결점을 시도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교사도 아동도 조금씩 변화해가는, 올바른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은 '성역할 사회화'라는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연구물들의 개략적인 결과들을 정리하여 요약하고, 이로써 교사들이 문제의식을 갖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힘겨운 일상 속에 지치고 문제의식조차도 잃어가는 교사에서 연구하는 주체로서의 교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때 동시에 전문인이 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1. 성 불평등의 기원

우리 사회에서 성 불평등을 가장 잘 웅변해주는 일이 있다면 세계에 유래없는 성비 불균형 현상일 것이다. 자연적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06명이라는 데 우리나라의 100:125라는 비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말할 것도 없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좋다(?)는 것을 뜻한다. 남자아이는 대를 잇고 나중에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직장생활을 하고, 더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성폭행을 당할 염려도 적고 동등.

그러면 성적인 평등이란 무엇일까? 램피어는 이에 대해 '사회집단이나 계층에 관계없

이 모든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범주의 활동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남녀가 평등한 사회란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로잘도는 성차별적 상황을 '공식적 활동영역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그리고 프리들은 '남성지배적 상황이란 남성이 한 사회에서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독점하거나, 최소한 여성에 비해 월등한 선택권을 지니는 경우'로 본다.

인류학적으로 성차별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관심을 갖는 점은 성별 분업(즉 여자는 육아와 가내노동을, 남자는 사회적 노동을 담당하는 것)이 왜 생겨났으며, 왜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 가내 영역에서의 활동에 비해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성별 분업은 남·녀의 생리적인 차이를 근거로 하는데 원시수렵사회의 경우, 임신과 출산, 수유,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이 가내 노동과 식물채집의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남자들은 수렵(큰 짐승의 사냥)을 담당하였다는 가설이 있다. 이 이론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그런데 왜 남성의 활동영역이 공적인 것으로 가치를 갖게 되었는가에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일반적인 이론은 엥겔스의 이론이다. 그는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여성 억압의 기원을 생산력 발달에 따른 사유재산제의 등장과 함께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상부구조 기제로서 일부일처혼에 입각한 가족이라는 단위가 하나의 독립된 경제 단위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엥겔스의 논의는 성차별 현상을 경제의 발달과 연관시켜 역사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제로 사유재산의 확대와 함께 공적 영역과 가내 영역의 분리가 보다 뚜렷해짐이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섹스는 '현대와 같은 계급사회에서의 남녀불평등 현상은 권력 구조와의 연관성 속에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여성이 재산을 소유할지라도 여전히 예측적 지위를 지니는 이유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분업을 조장하고 여성을 공적인 일, 사회적인 일로부터 제외시키는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과정은 국가라는 정치조직에서 주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공식적인 교육제도와 매스미디어 발달 등은 이러한 남녀불평등의 구조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강화하고 개별성원들의 의식구조 속에 내면화시키는데 기여한다.

2. 성역할 사회화

인간은 남녀로 구분되어 태어남과 동시에,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에 의해 행동이나, 태도, 외모 등에 대해 다르게 평가받고 기대된다. 이러한 성에 대한 관심은 우리 사회가

새로 태어나는 어린이의 성별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볼 때 알 수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아와 남아에 대한 서로 다른 행동양식의 요구는 성의 문화적인 특징을 가르치게 하고 이때부터 그 문화에서 자신의 성별에 적합하다고 규정된 일련의 가치관과 특성을 습득해 가는 성 유형화(sex-typing) 과정이 시작된다.

모든 사회가 성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에 따라 부과하는 역할의 정도와 엄격성에 있어서는 놀라울 만큼 다양하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다르게 부과되고 기대되는 성역할이 사회·문화적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역할 개념은 영·유아기에 형성되는데, 유아는 성역할 개념을 1세부터 갖기 시작하여 6세경에는 성인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된다. 유아기에 형성된 성역할 개념은 성장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는 성역할 개념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한편 유아가 성장과 함께 자신의 생물학적 성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회·문화적 기대에 따른 역할을 학습해가는 사회화 과정은 그것이 인지발달에 의한 지적 성취의 결과이든 동일시나 모방에 의한 학습의 결과이든(主, 성역할 개념발달에 관한 이론은 크게 정신분석이론, 사회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 세가지로 나뉜다) 유아의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진로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Bem에 의해 도입된 '양성성(androgyny)'의 개념은 '한 개인내에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공존한다'는 개념으로 성역할 사회화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크게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 성역할 유형에서 벗어난 아동의 행동을 이전과 같이 더 이상 일탈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적 성역할 발달이론은 남녀가 모두 자연스러운 개성과 잠재력의 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통합된 유형의 성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복잡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양성적 성역할을 나타내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아존중감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한다(Spence등, 1975).

유아의 성역할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부모, 교육기관, 또래, 대중매체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교육기관에 관해 살펴보면 하자(특히 교사와 교수자료, 아동의 놀이를 중심으로).

1) 교사의 영향

현재까지의 연구들에 의하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학습이 기존의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다. 형식교육에 있어 교사는 유일

한 권위적 존재로서, 아동에게 적절한 행동과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Irvine, 1986).

Lee(1976)는 유치원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개념을 유아에게 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교사가 유아에게 성을 구별하는 행동을 통해서이며, 둘째는 교사가 유아에게 성별로 다른 역할 기대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Hoffman(1983)은 교사가 여아에게는 외모, 협동, 순종에 주로 칭찬하는 반면, 남아에게는 주로 성취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으며 여아가 남아와 비슷한 활동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남아가 여아보다 더 활동적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Cooper(1987)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모든 연령의 교육자료에 드러나고 있으며 교사의 다양한 성역할 기대에 있어서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비평적 사고와 분석적 사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면서 이런 교육환경에서의 성차별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교육과정의 선택,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현옥(1979)의 연구를 보면 여성개발원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교사 대부분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고 남녀 아동에게 평등한 성역할을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교수과정을 관찰한 결과 전통적 성역할관에 근거해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운숙(1986)은 유아원을 대상으로 참여관찰을 통해 교사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으며 위계적 성역할 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면 남자는 힘이 약한 여자를 보호해야 하며 의자와 같이 무거운 것은 힘 센 남아들이 들게 하는 교사들의 행동이 많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최기영(1987)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을 개인적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성별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며, 특히 성별집단화는 아동의 행동 통제와 학급 통솔을 위한 명목(예 : 여자 친구들이 먼저 화장실에 다녀오세요)으로 많이 이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의 여성화로 보이는 “예쁘게 행동하기”가 남녀 아동 모두에게 요구되었는데 이는 남아에게는 양성성 습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심리적 갈등을 가져올 수 있고, 여아들에게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Brophy와 Good(1970)은 아동이 먼저 시작한 상호작용에서는 교사의 반응에 있어서 기대수준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비해, 교사가 시작한 상호작용에서는 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모든 유형의 교사 아동 상호작용을 보면 교사와의 접촉의 양은 남아에게 월등히 높다고 한다.

조경자(1988)도 교사가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여아에게보다 남아에게 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밝혀냈다. 뿐만 아니라 남아가 여아보다 교사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은 물론 긍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받고 있음도 밝혀내었다.

Serbin등(1973)이 연구한 바로는 교사가 여아보다 남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반응할 가능성이 더 많으며 큰 소리로 질책한다. 또한 남녀 아동들의 주의끌기와 교사 가까이

있기에 대한 교사의 반응이 다른데, 남아의 주의끌기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보다 지시적이고 교수적인데 반해, 여아의 주의끌기에 대한 반응은 칭찬, 신체적 접촉, 도와주기와 같은 양육적 형태가 많다고 한다. 남아는 교사와 떨어져 활동에 참여할 때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돌봄을 받으며 여아는 교사의 곁에 있을 때, 보다 많은 돌봄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여아들은 교사 옆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시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여아의 의존성이 강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2) 교수학습자료

3-6세 아동들이 보는 그림책등 아동용 도서는 아동의 성역할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인자로 작용한다(Katz, 1983). 유치원 아동들은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과 같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을 선호하며, 동성 등장인물의 행동을 더 모방해보고 싶어한다(Serbin, 1983). 바로 이같은 점에서 아동용 도서를 비롯한 교수·학습자료들이 담고 있는 정형화된 남녀 모습이나 활동들이 아동의 성역할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하겠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유아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도자료와 각종 단행본 동화 등을 대상으로 등장인물의 실태를 개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남녀 인물 출현비율은 약 2 : 1 정도이며 성인남자들은 직업인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뚜렷한 데 비해 성인여성들은 직업인으로 묘사하는 일이 극히 드물고 주로 주부로 묘사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별에 따른 활동 양상의 차이를 비교적 더 잘 보여주는 데 가령 동일한 일상활동일지라도 남아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활동이 많은 반면 여아는 소극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활동을 많이 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Marland(1983)는 아동용 도서가 묘사하고 있는 남녀 역할을 분석해본 결과 아동용 도서의 절대 다수가 남성과 여성을 전통적 고정관념에 맞춰 묘사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아동용 도서에 등장하는 인물 대부분이 남자이며, 여자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남자에게 봉사하거나, 남자에 의해 구출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여자들은 집 밖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그들의 역할은 부인이나 어머니이다(Flerx등, 1976).

반대로 성차별적 내용이 없거나 전형적인 성역할을 탈피한 내용으로 된 그림책, 이야기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완화시키고자 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며(Flerx등, 1976 ; 성구진, 1995 ; 우민정, 1996) 그 결과 유아들의 고정관념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또한 홍련애(1993)는 전형적, 비전형적 성역할 VTR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그림동화등의 정적인 자료보다 VTR을 통한 학습 효과가 더 지속적이었다고 하였다.

교수학습자료를 통한 아동의 성역할 행동 수정은 아동이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맞는 행동을 담은 이야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교수자료로써 효과적이지 못하고, 그러한 이야기

에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제한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3) 놀이에 나타난 성차

남아들은 볼록놀이와 몸을 크게 움직이는 놀이, 여아들은 소꿉놀이나 조용한 놀이를 주로 하는 것을 어린이집에서 흔히 경험한다. 이와 같은 선호하는 놀이에 있어서의 차이는 남녀 아동의 근본적인 기질차 때문인지, 사회적인 학습의 영향 때문인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레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동의 놀이에 나타난 성차를 몇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여아는 놀이에 더 관여하는데 반해 남아는 게임에 더 열중하면서 상호작용한다. 여아들의 게임은 남아들의 게임보다 규칙 수가 적으며, 놀이에서 여아들은 단일한 역할만을 수행하는 일이 많았다. 여아들이 참여하는 놀이로서 그 다음번으로 큰 범주는 1명의 중심인물(술래잡기)에게 집중하는 내용인 반면, 남아는 놀이에 가담한 인원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 좀더 복잡한 역할이 세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레버의 관찰에 의하면 남아는 경쟁지향적인 반면 여아는 좀더 협동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 게임의 규칙면에서 살펴볼 때 여아는 반복적 행위를 요구하는 게임을 즐겼고 남아는 좀더 복잡한 규칙을 따르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레버는 여아가 남아와는 다른 종류의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키며 남아에 비해 이런 면에서 뒤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렇지만 남성 주도적인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 남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필요할 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세계가 남성의 세계보다 열등하다는 가치 개입적인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여성성으로 분류되는 유연성, 타자지향성, 협동성 등의 자질은 결코 열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평등한 성역할 개념형성을 위해 제안되는 실천들

- 교사 스스로 갖고 있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의식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한다.
- 여성성을 경시하지 않고 가치로운 것으로 존중한다.
- 교사가 남자와 여아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한다.
 - 여아에게는 외모, 순종에 대해 칭찬하고 남아들은 성취에 대해 칭찬하지는 않는가? 무거운 것은 남아만 들고 다니는가? 여아가 가까이 있을 때만 주의를 주는가? 대체로 남아에게 관심이 더 많이 가지는 않는가? 남아가 더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기를 기대하는가? 남아에게 발언권을 더 많이 주는가? 남아에게는 지시적이고 교수적인 주의를, 여아에게는 양육적인 돌봄의 주의를 주지는 않는가?
- 유아가 성에 제한되지 않고 놀이할 수 있도록 영역을 재조직하고 남녀 유아의 다양한

놀이 선택을 격려한다.

- 교사는 일주일 동안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아동의 놀이를 관찰하여 성에 따라 놀이가 어떻게 다르게 선택되고 나누어지는지를 관찰한 자료에 근거해서 성유형에 관계 없는 놀이 선택을 격려하기 위해 물리적인 실내 외 환경의 영역을 재조정한다. 예를 들어 극화 놀이 영역은 부엌 외에 작업을 위한 연장과 공간, 가정 내의 다른 공간, 남성과 여성의 일과 놀이 옷을 제공하고 유아들이 고정적이지 않은 성역할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모래놀이 영역에 걸옷을 비치해 여아들이 기피하지 않고 놀이하도록 배려한다.
-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데 주저하는 유아에게 교사의 개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볼록놀이에 여아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모든 아이들이 볼록을 가지고 노는 날"로 정하기 등.
- 남녀 모두 감정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같은 행동을 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지는 않는가?(예 : 여아가 울면 그냥 두면서 남아가 울면 "사내 대장부가...")
- 음악과 연극을 활용하여 유아들에게 새로운 역할 속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가정 밖의 활동에 대해 여러 분야의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함께 일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동성에게는 흔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대하고 면담하게 한 후 역할놀이하기.
- 가정과 직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남녀의 사진과 그림들을 전시한다.
- 성차별적이지 않은 내용의 동화책, 이야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택한다.
 - 착하고 아름다운 공주 대신에 지혜롭고 강인한 성격의 바리공주, 박씨부인전, 선망대 할망이야기 등.
 -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교수자료들은 어떠한가?
- 대그룹으로 노래하거나 손유희를 할 때 성별의 구분이 없도록 단어를 수정하거나 첨가한다.
- 학급 운영의 방편으로 성별 집단화를 하지 않는다.
 - 줄세우기, 남녀 집단의 경쟁.
- 모든 아이들에게 무조건 조용하기, 선생님 말씀 잘 듣기, 공손하기, 의존적 행동하기를 요구하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본다.
- 언어적 발달, 신체적 강화와 훈련이 성에 따른 구별 없이 골고루 잘 분배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찰, 분석, 토의를 한다.
 - 스스로 각성하고 있는가? 교사 간의 토의는 이루어지는가?
- 아이들과 새로운 성역할에 대한 느낌이나 가치관을 주제로 토론한다.

- 아동이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것에 관하여 진지하게 아동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 가정에서의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해 부모 교육을 한다.

이 외에도 많은 실천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Reference

- 김동일(1993) 편저, 성의 사회학, 문음사
 성구진(1995), 반편견 그림동화가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우민정(1996), 성역할 평등개념에 기초한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석사학위 논문
 한국여성개발원(1995),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성역할 교수 학습과정 분석

*** 지탁연은 정부 제2차관실로부터 성평등 교육에 관한 프로젝트를 받아 11월 초 교사교육강화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보육대회 참관기

일본 전국 보육대회를 다녀와서

임남희 / 본회 부회장

일본의 공무원 노조인 자치노와 한·일보육교류협회의 초청으로 한국의 보육상황과 한·일보육교류의 한국측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탁연의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7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오사카에 다녀왔다. 이번 방문의 주목적은 오오사카에서 열리는 제17회 일본보육대회에 참가하는 것이고 행사중 한국의 보육상황에 대한 발제가 프로그램으로 잡혀있었다.

일본보육대회는 해마다 각 시별로 돌아가면서 열리고 행사의 주체는 보육대회가 열리는 시의 자치노가 맡는다. 오오사카 자치노에서는 올해 초부터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고 '96 오오사카 대회는 재일한국인, 부락해방운동체 등 일본의 사회적인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이고, 보육상황이나 보육운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발달해 있음으로 해서 행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지역이란단. 그 명성에 걸맞게 평상시 해에는 약 2,000명 정도의 보육교사(주로 국공립 교사)가 참여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2,300명 정도 참여를 예상하고 있었다. 오오사카시내의 교사 600~700명 정도와 타 시·도 교사 1,400명이라니, 이번 지탁연과 민보련의 보육연수 참여인원 약 500명에 비하면 4배가 넘는 참여인원이다.

9일중 보육대회 참가 2박3일을 뺀 나머지 시간은 작년 연수팀과 비슷한 시설을 방문하고 교류하였다. 작년 연수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시설방문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보육대회 일정을 살펴보면서 보육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해보겠다.

26일 전체 일본의 보육교사가 오오사카 지정된 호텔에 여장을 풀고 오후 2시부터 오오사카 전 지역으로 흩어져 보육소 및 아동시설을 견학한다. 이 견학이 참 재미있다. 우리가 묵고 있는 이꾸노구 성화사회관에 33명의 교사가 왔는데 에어컨도 없는 3층 강당에서 김덕환선생님(성화복지관 이사, 한·일보육교류협회회장)이 이꾸노의 지역상황과 재일동포문제, 성화사회관, 보육소에 대해 무려 30분간 한마디 막힘도 없이 설명을 하신다(강연내용은 나중에 끝난 후 여쭙봐서 알았다). 33명의 참가자중에는 중년 정도 나이의 교



○ 오기마치공원에서 열린 보육대회 개막식에서 한국을 대표해 참석한 회장님과 필자, 우리를 소개하는 김덕환선생님.

사들이 많고 남자교사도 2명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 둘씩 조는데도 선생님은 너무나 진지하고 정열적으로 강연을 하셨다(알아들지도 못하면서 국제적 체면상 더운 곳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 경청(?)하는 회장님과 필자의 모습의 고통을 상상해보시라).

강연후 6명이 한조가 되어 지역견학을 한다. 그냥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지도와 문제지를 가지고 공부방의 지적장애아(知的障害児-일본에서는 장애아를 '장애아'라 부르며, 자폐아를 지적장애아라고 한다)들의 안내로 지역견학을 한다. 문제는 '갈순이 김치가게에서 김치를 1,000¥어치 사시오'와 '보육소에서 애용하는 정육점에서 한국의 고기로 만든 스프는 무엇인가(답:곰탕)', '한복집은 몇곳인가' 등의 문제에 대한 답을 써서 15분 동안의 견학의 증거로 성화사회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견학지도자인 지적장애아들과 교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고 장애아들도 힘껏 안내하는 모습이 일본 장애아통합보육의 결과로 보였으며 무척이나 인상깊은,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와야 할 모습이었다.

오후 6시에 오기마치공원이라는 곳에서 개회식 같은 집회가 열렸다. 2,300여명이 모이는 집회에 중앙무대 앞에는 의자가 한 200여개 밖에 놓여있지 않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고 뭐 사먹고 떠드는 모습이 얼마전에 본 전교조 교사대회의 통일적인 집회 참여 모습과 비교되었다.

중앙무대에서 사회자의 카랑카랑하고 유머스런 말로 각 지역참가자와 임원, 그리고 우리 한국쪽 초청자(바로 회장님과 필자)를 소개하였다. 자치노 임원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한데도 동물의상이나 만화주인공 의상을 입고 행사장 곳곳을 돌아다닌다. 다음으로 성화사회관 동물패의 공연, 매그미 보육소 교사들의 오끼나와 북춤공연을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준비한 공연들이 시작되었다. 특히 다문화공생회에서 준비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전통무용이 화려했고 마지막으로 오끼나와 민속춤은 너무 쉽고 재미있어 마침 일본 연수중인 본회 광주지역위의 주경남씨와 함께 신나게 무대 앞으로 나가 춤도 추었다.

27일 둘째날은 18곳의 정해진 장소에서 그룹토론과 분과회가 열렸다. 그룹토론은 오오사카 교사들이 발제·사회를 준비하고 주제는 「인권이란 무엇인가, 여자·남자란, 세계에 대하여」 등 15가지의 다양한 주제하에 각자 흥미있는 분야에 참여해 토론한다. 그룹토론이 끝나고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한 후 다시 분과회장으로 이동한다. 우리는 이중한 분과회에서 한국의 보육상황을 발제했고 김덕환선생님의 도움으로 일본어로 된 지략연 소개문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원래 자치노는 타이와 교류하는데 타이쪽에서는 이번

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 한국만 참여했고, 다문화공생회라는 단체에서 타이의 상황에 대한 발제와 교류내용을 슬라이드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 분과회에 그동안 우리와 교류하였던 교사들이-올해 6월 본회에서 연수했던 '희망의 문' 선생님들까지-참여해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기념으로 사진촬영까지 했다.

28일 마지막날에는 오오사카 시청 시민회관에 전체 참여 보육교사가 모여 대회결 해소식을 한다. 보육 관계자들의 축하와 자치노조의 인사 마지막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회를 마무리한다. 노조 준비위원들은 6.25 특집극에서나 볼 수 있는 빨간 완장을 팔에 두른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다.

다음으로 특별공연으로 오오사카에만 있는 어린이를 위한 성인남자들로 구성된 Skip Band의 공연이 있었다. 규모가 큰 보육소에서는 해마다 이 밴드를 초청해 공연하고 그 인기는 굉장하다. 드럼, 기타, 바이올린, 베이스키타, 키보드, 싱어로 구성된 밴드인데 어린이의 정서를 무척이나 잘 알고 있다. 단순히 보는 공연과 부모와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풍선놀이, 일상용품을 활용한 악기 등 충분히 어른, 아이들을 때로시킬 내용으로 아주 신나게 공연을 했고 관객도 모두 즐거운 공연이었다. 이 공연을 끝으로 제17회 전국보육대회는 끝이 나고 우리의 공식일정도 마무리되었다.

처음 가본 나라이고 처음 본 행사라서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다. 일본이 웬지 싫어 일본어 공부도 특히 싫어했던 필자였지만 보육에 관해서, 복지에 관해서만은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임에는 틀림없었다. 모든 공식행사에 수화요원을 배치한다든지 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 거의 8개월동안을 비상체제로 돌입하여 준비하는 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은 가히 존경스러울 정도였다. 특히 이번 오오사카대회는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그동안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형태였고 참여자 또한 그동안의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매우 진지하고 집중적인 내용을 갖는다고 김덕환선생님은 평가하신다.

자치노 독자적이고 공식적인 초청이 아니라 대접의 소홀함(?)도 있었지만 앞으로 교류의 물꼬를 튼 첫번째 초청이라는데 의미를 두고 많은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한국 지략

연과 일본 자치노조와 교류를 이루도록 노력해주신 한·일보육교류협회의 뜨거운 애정을 확인할 수 있어 이번 방문의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끝으로 말 안통하고 낯설은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주경남, 변미양 두 사람의 건투를 빌며, 친척아버지처럼(이렇게 표현하면 화내시지만) 여러모로 보살펴주신 김덕환선생님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 오오사카 시청 공민회관에서 열린 보육대회 폐막식.

어린이집 식단

가을철 어린이집 식단

오경민 / 영양사

그야말로 남은 여름을 처분한다는 '처서(處暑)'가 왔다 싶더니 연이
은 가을비로 반팔 소매옷이 썩스러울 정도로 서늘해졌습니다.
9월은 추석도 있어서 솔잎에 찢 송편 생각에 벌써부터 입안에 군침
이 도는군요. 각 어린이집에서는 가을철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입맛을
어떻게 돋구실 계획이세요?
어린이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을철 식단의 한 예를 들어봅니다.

영아 이음식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갯죽	다진고기 넣은 채소죽	호상요구르트	달걀노른자와 옥수수	진밥	당근죽
2주	고구마요즘	치즈죽	흰살생선찜	시금치죽	같은 사과와 요구르트	콩죽
3주	호박죽	장국죽	밤알죽	물만두	오렌 감자	찜 무우 조림
4주	멸치죽	탕죽	채소죽	쇠고기무우국 과 밥	국수장국	미숫가루죽

3-5세 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오전 간식	우유	두유	요플레	우유	두유	같은 사과주스
	점심	쌀밥 쇠고기미역국 동태전 연근조림 김치	보리밥 두부된장국 갈치조림 시금치나물 깍두기	칼국수 짜두기	수수밥 북어국 두부조림 호박전 김치	밥 어묵국 마른새우볶음 숙주나물 김치	밥 김치국 감자볶음 장조림 김치
	오후 간식	편 옥수수	사과+과자	샌드위치+우유	떡꼬치	경단+주스	삶은 밤+우유
2주	오전 간식	우유	두유	같은 사과주스	우유+콘플레이크	두유	우유
	점심	현미밥 쇠고기무우국 아채달걀말이 콩나물무침 김치	쌀밥 된장국 고등어튀김 가지무침 김치	밤밥 미역국 물오징어볶음 우렁조림 김치	짜장밥 단무지무침	보리밥 토란국 달걀볶음 묵무침 깍두기	쌀밥 북어콩나물국 닭고기감자조림 오이무침
	오후 간식	편만두	화전	편고구마	오징어튀김	배+경단	편향+주스
3주	오전 간식	요플레	우유	요구르트	두유	우유	현죽
	점심	밥 애호박감자국 콩조림 버섯볶음 김치	쌀밥 조개살미역국 완자전 감자조림 깍두기	밥 육개장 달걀조림 미역줄기볶음 김치	김치볶음밥 콩나물국	밥 무우다시마국 장조림 갯잎떡 김치	국수장국 김치
	오후 간식	우유+카스테라	절편+식혜	삶은 밤	핫케익+주스	감자전	편향+우유
4주	오전 간식	우유	두유	요플레	같은 사과주스	두유	우유
	점심	고구마밥 시금치된장국 달걀찜 콩나물무침 김치	콩밥 마른새우미역국 돼지불고기 애호박볶음 깍두기	카레밥 단무지무침 김치	보리밥 순두부찌개 북어찜 도라지생채 김치	밥 토란국 오징어채볶음 알감자조림	김밥 계란국
	오후 간식	떡꼬치	송편	고구마맛탕	파전	편옥수수	떡볶음

전통육아

전통육아 바로 알기

조인숙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본 글은 본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으로 계시는 조인숙님이 7,8월 3차례에 걸쳐 여성신문에 연재기고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육아법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그에 따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심코 지나쳤던 전통육아법과 아울러 우리의 보육방법을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계는 우리 전통육아법으로 전환 중

우리 주변의 부모들에게 “당신은 왜 부모가 되었습니까?”,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이 아무 말도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질문한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할 지도 모른다. 부모됨에 무슨 준비?

준비없이 시작하게 된 부모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필요한 서적을 사서 읽거나 주변의 충고로 부모됨을 익히고 아이를 기르게 된다.

우리는 집안에 냉장고를 하나 사려고 할 때도 시장조사를 하고 기능을 살피고, 무엇보다 ‘우리 집에 적당한가?’하는 것 등을 따져본다. 그런데 자녀교육에 관한 것은 참으로 대답하게 결정하고 주변 정보를 너무 쉽게 확신한다. 우리 주변에 나와있는 부모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이 미국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된 것이고, 그들의 사고에 적합하게 띄여진 것들이 대다수이므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한 것이 많이 있다.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집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없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교육, 양육의 문제에서는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무리 훌륭한 방법이라고 해도 내 가정, 내

아이에게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것을 무시하고 서양것을 무조건 따라 배우는 교육을 해왔다. 우리나라 전통에 담긴 정신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것은 졸렬고, 고리타분하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무시되어 왔다. 자녀양육에서도 전통방식은 무조건 무지한 부모들의 자녀 양육법이라고 치부되었고, 서양 방식으로 해야만 지식인이고, 앞서가는 부모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젖을 먹이기 보다는 우유를 먹이고, 되도록 빨리 아이를 따로 제워야 하고, 아무리 울어도 먹울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우유를 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등의 미국식 아이 훈련법으로 키우는 부모가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1970년 이후 좋은 양육방법이라고 제시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기계적으로 3시간마다 우유를 주기보다는 아이가 배고플 때 먹게 하는 것, 울음에 민감하게 응해주고, 버릇이 조금 나빠지더라도 많이 안아주는 것이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생활방식, 자녀양육 방식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 어머니가 아기를 기계적으로 대하는 것은 오히려 어머니 자신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그렇게 쉽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려는 한국 부모의 또 다른 정서에도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지해서 아이를 잘못 기르는 일은 드물다. 오히려 좋은 부모는 많은 지식 속에서 우리 가정과 내 아이에게 적합한 정보와 지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것이 자녀를 유능한 세계인으로 기르는 비결이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내 가정, 내 아이를 바로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옛 어른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낮추거나 감추어서 표현하였다. 사랑, 노여움, 기쁨, 즐거움 등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상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였던 ‘매’는 미국인들이 사용하던 체벌의 개념과는 매우 달랐다. 아이의 행동을 보고 즉각적으로 화가 나서 매를 들기 보다는 한번, 두번 행동을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다가 더이상 방치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따끔하게 야단을 쳤다. 그 수단으로 매를 사용하였는데, 그저 눈에 띄는 것으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하여금 매를 준비해 오도록 하거나 준비된 매를 가져오도록 하여 때렸는데, 이는 아이가 매를 가져오는 동안 부모의 격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선조들의 가장 강도 높은 벌은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때리는 것이었다. 즉, 선조들의 매는 충격을 주거나 혹은 감동을 주어 아이를 깨닫게 하는데 사용되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체벌을 교육적으로 사용하면 타당하다’는 등의 말은 이미 시대에 맞지 않는 억지에 불과할 지 모르지만 서양인들이 말하는 체벌과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였던 ‘매’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곁에서 항상 같이 생활하며, 세심한 보살핌을 받게 된다. 조그만 울음소리를 내도 기저귀가 불편한가, 자리가 불편한가 이것 저것 살펴보고 그래도 울면 “네가 벌써 먹고 싶은 게로구나”하면서 젖을 물린다. 선조들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를 했다. 아기가 앉거나 기게 되어도 아이를 혼자 두는 법은 없다. 엄마 등에 업고 일을 하건, 엄마 외에 할머니, 고모, 삼촌, 언니 등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거나 함께 놀이대상이 되어준다.

반면 미국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기방, 아기침대에서 따로 재우며, 아이가 앉을 수 있게 되면 놀이대(Play Pen) 안에서 몇 개의 장난감을 갖고 놀게 한다. 처음부터 많이 안아주거나 요구를 들어주면 버릇이 없어지고 의존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은 제한하고 언어로 표현한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돌 이전에 부모가 많이 안아주고 아이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동의 정서발달이나 지능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미국의 오랜 양육방식이 그것과는 너무도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신체접촉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전통육아법은 아기를 온전한 인격체로

어린이에 대한 서양의 전통적인 관점은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어른의 축소판, 미완성된 인간으로 보는 것이다. 중세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원죄설에 큰 영향을 받아 어린이의 본성을 아주 악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보호가 아니라 항상 감시를 하도록 하였고 매우 엄하게 다루었다. 서양에서 어린 시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린 아이를 존중하자는 바람은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일기 시작하였으며 근세 말기의 루소에 이르러서 어린이를 자연 속에 합일되는 인간으로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것에 견주어 볼 때 우리 조상들은 어린이에 대한 인간존중사상을 여기저기서 엿볼 수 있는데 우리의 나이 계산법이나 태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은 아기가 태내에 있을 때부터 한 생명체로 존중하였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태어나면서 나이 1살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태내에 있는 약 270일을 생각하면 그리 억울한 나이만은 아니다. 태어난지 백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아이를 위해서 떡과 음식을 장만하고 친지와 이웃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준다. 이날은 우리 민족이 백이라는 숫자를 유난히 좋아하고 신성시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난지 백일이 되는 날을 기념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기가 한 인간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지 약 370일, 즉 1년이 되는 날이니 백일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하고 경사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조상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 합방을 할 때에도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좋은 날을 받아서 합방을 하여야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믿었으며, 아기가 태어나기 이

전, 즉 태내에 있을 때에도 바르게 가르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총명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생각하였다. 임신임을 알게 되면 모든 생활에서 몸가짐을 조심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보고, 듣고, 행하려고 노력하였다. 자라도 가려서 앉고, 아이에게 좋은 것, 예쁘고 바르게 생긴 것을 가려서 먹였다. 임신중에 닭고기를 먹으면 아기 피부가 닭살이 된다는지, 오리고기가 고열량에 고단백식품이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아기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만은 없다.

최근에는 외출할 때 업는 것이 엄마들의 땀시를 흐트린다 하여 대부분 아기 멜빵으로 아기를 안고 다닌다. 그러나 등에 업으면 엄마가 보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며, 걸어가는 방향을 보기 때문에 아기는 훨씬 안정감을 느끼며, 이것 저것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가는 방향과 거꾸로 앉아서 가면 어지럽고 뭔가 편안하지 않음을 느껴왔을 것이니, 집안에서 일을 할 때 아이를 업는 것도 아이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준다. 돌 이전에 어른들의 시야를 벗어나 아이를 혼자 놀도록 두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엄마가 아이를 업으면 아기는 물론 기분도 좋지만 엄마가 하는 일을 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아주 낮은 위치에서 일하는 거대한 엄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 눈높이에서 엄마가 하는 일을 볼 수 있고, 자세히 볼 수 없었던 살림살이들을 이것 저것 살펴보는 것도 아기에게는 즐거운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젊은 엄마가 아기를 멜빵으로 안았는데 거꾸로 안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아마도 그 젊은 엄마는 아기가 엄마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안고 가는 모양이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작은 아기가 선두에 서서 바람을 가르며 가야 한다는 것이 웬지 그 아기로서는 너무 벅찬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기를 업거나 안는 것은 가슴과 등, 가슴과 가슴이 맞닿음으로써 아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것이 아기의 정서를 편안하고 안정되게 해준다. 업어주면 다리가 뻐다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단순히 업어주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업어주는 시기와 업어주는 정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너무 일찍 업기 시작한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업어준다든지, 목과 등뼈에 아직 힘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세워서 안아준다든지, 혹은 아기는 아직 신체적으로 성숙이 덜 되었는데 무리하게 걷기 연습을 시킨다든지, 혹은 아기 스스로도 일찍 잡고 서기 시작하였던가 하는 것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

‘도리도리’ ‘ 짹짹’은 훌륭한 육아법

백아제는 갓 태어나서부터 만 2살이 될 때까지는 감각운동기로 감각과 동작의 발달을 통하여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인지의 발달을 꾀한다고 하였다. 손가락을 빨고, 물건을 빨

아보고, 두드리고, 혹은 탁자 위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밀어 떨어뜨려보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물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터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책이나 교구를 통해 가르쳐야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아기들은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며 그러한 경험을 충분히 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우리 전통 사회의 육아방법을 보면 갓난아기를 위한 다양한 놀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아기의 발달단계에 맞는 단순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아기의 동작운동을 통해 인지발달을 도모하고 어른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다. 또한 이들 놀이는 쉬운 리듬과 단어를 웅얼웅얼 불러가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동작활동과 어른과의 즐거운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 정서발달 외에 리듬감, 어휘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전통육아에서 들 이전에 아기와 함께 했던 놀이를 살펴보면 '도리도리', '짝짜꿍', '곤지곤지', '점점', '고네고네', '따로따로', '불무불무' 등이 있는데 모두 쉽고 재미있는 어휘로 되어 있고 놀이도구 없이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고네고네', '따로따로', '불무불무' 등은 다리에 어느 정도 힘이 올라서 혼자 서려고 하면서 시작되는 걸기 위한 기초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도리도리', '짝짜꿍', '곤지곤지', '점점' 등은 이보다 더 어린 아기들을 위한 놀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보통 3, 4개월이 되면 누워만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 엎치거나 온몸을 이용하여 움직이려고 시도할 하기도 하고 지지를 해주면 앉아있기도 한다. 이때가 되면 어른들은 '도리도리'라는 동작을 가르치는데, 어른이 아이 앞에서 도리도리라는 말을 해가면서 시범을 보이면 아기들이 이를 모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을 모방하고, 그것을 기억하여 재생하도록 하는 교육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백아제는 4개월에서 10개월경까지를 눈과 손의 협응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하였다. 흥미있는 사물을 보면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재미있는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하려는 행동을 하면서 눈과 손의 협응을 스스로 터득해간다.

우리나라의 전통육아방법을 보면 이 시기의 '짝짜꿍', '곤지곤지'는 이보다 한단계 더 나아가 한 손바닥에 다른 손의 검지손가락을 찍도록 하는 것이다. 이 동작들은 '도리도리'와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부르는 리듬에 맞추어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모방하는 것으로 어른과 아기의 즐거운 상호작용을 갖도록 하는 수단이 되며, 손과 눈의 협응을 돕는 좋은 활동이기도 하다.

특히 '곤지곤지'는 검지 손가락만을 뻗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근육 운동(Fine moter skill)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점점'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으로 이 역시 소근육 기능을 발달시키는 동작이다.

이러한 전통 아기놀이를 현대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른과 함께 즐겁고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인지, 지능, 정서 발달을 위한 훌륭한 교육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비싼 교재나 책을 사두고 너무 일찍부터 아기에게 어려운 교재를 제시하는 경우를 흔히 본다.

아무리 비싸고 훌륭한 교재라 할 지라도 아기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법이다. 차라리 아기에게는 마음껏 구기고 찢을 수 있는 신문지나, 깨지지 않고 두드리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가벼운 냄비와 숟가락,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주전자 등이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다.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로 키우려면 비싼 교재를 사주는 것 보다는 말에 리듬을 붙여 아기에게 흥미를 돋우고 쉽고 재미있는 놀이로 아기를 가르쳤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활용해보자.

새 책 소개

놀이방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E.Q를 높여주는 육아제안 20-

박희 8월 · 지역사회학아학회 발행

94년 · 역성 실용 / 32면 / 200원 / 값 3,300원

'우리 아이는 놀이방에 있는 동안 무얼 하며 지낼까?'

지타연에서는 놀이방, 어린이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아이들의 독특한 세계를 예외소드 형식으로 담아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모두 여섯마당으로 구성된 이 책은 아이들 세계에 대한 다양한 해설과 아이를 향한 애정어린 시선을 통해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히, 만3-6세 아이들의 E.Q(감성지수)를 높여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독특한 세계를 드러내보여, 전에는 그냥 '아이니까'하고 스쳐 지나갔던 많은 아이들의 말과 몸짓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하고 그 깊이만큼 성숙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거나 보내려는 부모들과 현재 보육교사로 활동하거나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분, 혹은 어린이집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악교육 심판기

굿거리 장단을 아는 아이들

오윤정 / 본회 전 교육부장, 현 교육연구부원

오늘은 영등포구에 있는 어깨동무어린이집에 가는 날이다. 몇달 전 우연히 어깨동무 어린이집에 갔다가, 선생님이 치는 팽과리 소리에 맞춰 아이들이 땅따먹기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즐겁게 노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편집부에 취재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다. 그랬더니, 말한 사람이 책임지자는 편집부의 괴상한(?) 논리로 결국 내가 어깨동무어린이집으로 취재하러 가게 된 것이다.

내가 만날 사람은 어깨동무어린이집 기린반(3,4,5세반)의 선생님과 아이들이다. 방문을 살피시 열고 들어가니 기린반 서은희선생님께서 가볍게 목례로 인사하신다. 집단활동시간인가 보다(서선생님은 '함께 하는 활동'이라 말했다). 아이들이 모여 앉아있다. 선생님은 『백두산』이란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가 한창이다. 내가 의자에 앉으려니, "아, 오윤정이모다."하고 아이들이 아는 체를 한다. 이번 여름캠프에 자원봉사자로 따라갔는데, 하루밤 같이 보냈다고 기억들을 하나보다. 아이들은 17명, 사진을 찍느라 내가 터트리는 후레쉬를 핑계로 아이들은 선생님 말은 듣는 등 마는 등 사진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얼굴을 들이밀고 야단이다.

낮선 이의 출현으로 아이들의 관심이 모아지질 못하자, 서선생님은 이야기를 재빨리 끝낸 후 새 노래 배우기를 했다. 내가 취재하려는 대목이 이제 나오나 보다하고 눈을 크게 떴다.

"오늘은 새 노래 가르쳐 준다고 했지. 무슨 노래이고 하니 '돼지 불알'이야. 돼지 불알이 뭔지 아니? ... 옛날에 순이가 옆집에 놀러갔는데 옆집 아줌마가 돼지 불알을 먹으라고 주셨대. 무슨 맛이였을까?"

"매운 맛이에요."

먹어보지 못한 돼지 불알 맛을 어찌 알라마는 매운 맛이라니... 선생님이 먼저 불러보자 아이들이 웃는다. '찌찌 찌른내가 나네요. 꾸꾸 꾸런내가 나네요'하는 대목이 웃긴가

보다. 노래를 한번 부르고 손동작도 가르쳐 주신다. 무릎한번, 손바닥 한번, 왼쪽 엄지, 오른쪽 엄지, 그 다음은 무릎한번, 손바닥 한번, 팔꿈치... 점점 넓어지는 팔 동작에 옆친구가 부딪치니, 깔깔대고 웃는다. 새침때기 여자아이는 "선생님, 재가 나 때려요."하고 선생님에게 구조를 요청하지만 "이 놀이는 그렇게 친구 몸을 치면서 하는 거야." 선생님의 대답에 목이 쑥 들어간다. 옛날 못살던 시절 아이들의 노래이니 노래 속에 숨어 있는 정서를 다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노래가사가 주는 유우머와 바로 놀이로 이어지는 맛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노래 부르기를 두세번, 서선생님은 소고를 가져오라신다. 서선생님은 올해 국악교육을 시작하면서 악기로는 소고를 택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린반 아이들은 자기 소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어쩌다 한번 혹은 순서대로 기다리다가 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라 언제든 필요할 때는 모든 아이들이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후다닥 뛰어가서 자기 소고를 가져오는 아이들 때문에 잠깐 시끌시끌했다. 소고를 들고 제자리에 온 아이들, 소고와 소고채를 드는 품이 제법 자연스럽다.

"소고칠 때 우리 약속했지. 나는 칠 때 재미있지만 다른 친구들에게는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칠 때 같이 치는 거다."

선생님은 다짐을 확인하지만, 수정이는 선생님 눈치를 봐 가며 소고를 두들긴다. 작은 눈은 웃음에 가려 보이지가 않고, 두들기는 짓은 멈출 줄 모른다. 잠깐이지만 소고소리가 내 귀엔 소음으로 들렸다. 결국 서선생님과 눈이 마주치고, 혀를 쑥 내밀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수정이는 소고치기를 멈췄다.

"줄 밟고 서세요." "줄 밟고 섰어요."

아이들은 두줄을 만들어 바닥 금을 따라 섰다. "인사" "당 당다다 다아앙 따" 치고는 인사를 한다. 그렇게 인사하는 모양을 보니 마음 한 구석이 몽글하다. 마치 공연 무대에 선 아이들처럼 당당해 보이는게 어리광 피우던 모습은 간 곳이 없다.

"지난 번에 배운 백두산 해 볼까?"

'백두산' 전주가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오고 갑자기 아이들이 눈을 감고 몸을 왼쪽 오른쪽으로 가볍게 흔든다. 무얼 아는 걸까? 아마도 선생님이 이 조용한 소리를 느껴봐라 하고 가르쳐 주셨나보다. 음악이 경쾌해지면서 아이들은 음악에 맞춰 소고를 툭툭 치며 제자리 걷기를 한다.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우리들의 백두산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선생님이 "한줄" 하자 두줄이었던 아이들이 한줄을 만들며 소고를 친다. 그리고 다시 두줄을 만들고, 앞을 보고 서서 다시 제자리 걷기를 하다가 서로 다가와 한줄로 선다. 다리로 움직이는 사이 손에 권 소고를 가지고 노래의 내용에 맞춰 산 모양을 만드기도 하고 동그렇게 원을 만들어 어깨동무를 하였다. 소고를 힘있게 치는 모습이나, 소고의 양면을 번갈아가며 치는 모습이 신이 나 있다. "또 해요"하는 아이들의 주문에 한번 더 했다. 소고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다루는 모습을 처음 본 터라 신기했다. 다시 동그렇게 둘러 앉더니 소고를 내려 놓고 내 소고 한번, 옆 친구 소고 한번 치기를 반복한다.



☞ 어깨동무어린이집 기린반 아이들과 서은희 선생님이 국악동요를 부르며 저마다 자기 이름이 적힌 소고를 갖고 소고춤을 즐겁게 추고 있다.

“얘들아, 채를 꼭 잡지 말고 살짝 주먹 쥐듯 잡고 치는 거야. 힘있게 소고의 그림(가운데 태극무늬)을 치는 거야.”

선생님이 아이들 소고치는 모습을 흉내내자, 아이들도 그것이 틀린 것을 아는지 킁킁대고 웃는다. 내 소고와 남의 소고를 번갈아 치기를 하며 아까 배운 ‘돼지 불알’을 부른다. “우리 마지막으로 무슨 노래 할까? 산도깨비, 종다리, 백두산...” “종다리요.” “산도깨비요.”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제목에 목청높여 소리치려는 바람에 어린이집이 떠내려 갈듯 했다. 또 무슨 노래를 해야 좋을 지 알 수가 없었다. “산도깨비 부를 사람?”하고 선생님이 묻자 손을 든다. “그러면 종다리 부를 사람?” “그러면 백두산 부를 사람” 비슷비슷한 수로 원하는 노래 제목에 손을 드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다 불러야겠네.” “딩기더기 덩 더러러 덩기더기 쿵더 쿵” 선생님의 선창에 어깨를 들썩이며 아이들이 따라 부른다. 아이들은 몸으로 배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이들을 보며 알 수 있었다. 가락에 취해 어깨를 들썩이는 지담이와 경미의 모습에서 언젠가 술에 열큰히 취한 할머니가 흥겹게 들썩이던 어깨춤이 떠올랐다. 내가 보면서 가장 감동한 것은 자연스러움이었다. 우리 국악을 부르는 아이들도 자연스럽고, 소고를 치는 모습도 자연스럽고, 꼭 국악인처럼 몸을 움직이며 몸으로 느끼며 부르는 모습도 자연스러웠다. 가끔 텔레비전 국악프로그램에서 느끼는 어색함이 없다는 것이 놀라웠다. 중간 중간 추임새까지 들어가며 신나게 ‘산도깨비’를 부른 아이들은 내친 김에 ‘종다리’, ‘백두산’까지 다 부르곤 만족해했다. “자, 이제 소고를 갖다 놓고 오세요.” 이렇게 함께 하는 놀이시간은 끝이 났다.

점심을 먹고, 낮잠 자는 아이들은 재우고는 서은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왜 국악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문화, 놀이, 노래를 접할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음악, 문화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사실 저도 국악을 배운 적이 없어 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공동육아연구회(현재, 공동육아연구원)에서 국악교육 강좌가 있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강좌 강사

셨던 임수정 선생님과 그때 수강생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배우는 후속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교육 이후 제가 아이들과 직접 국악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한데...”

서은희 선생님은 안양 한무리어린이집 교사생활을 2년 했고, 현재 어깨동무 어린이집 교사 2년째이신데, 그동안 어떤 교육을 했는지 무척 궁금하였다.

“우리 가락, 우리 장단을 언제든지 서슴없이 찾아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몸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자기 몸을 이용해서 장단을 익히기도 하고, 소리를 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래 동요, 국악, 창작동요 등을 가르쳐 주었어요. 장단을 몸으로 익히며 노래를 배우는 것은 쉽지요. 음악감상 또한 창작국악이나 어린이국악, 국악을 들려줍니다. 아이들이 즐거워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했던 음률교육과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선, 노래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국악을 특히 좋아하는 것은 놀이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땅따먹기를 하려면 기운을 돋우기 위해 쟁과리 소리에 맞춰 ‘땅도 땅도 내 땅이다. 조선 땅도 내 땅이다.’ 하며 노래를 부르지요. 또 개고리 타령이면 개구리 모양을 흉내내며 부릅니다. 음률교육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소고라는 악기를 치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니, 움직임이 많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른 국악교육은 노래, 춤, 놀이 모두가 어우러져야 합니다.”

국악을 통해 바로 음감, 박자 배우기 등 일반적인 음악 교육을 할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즐거움이라고 강조하신다. 소고를 배우는데 기술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고를 치면서 즐거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큰 교육의 목표라 했다.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세요?”

“저도 국악에 대해 많이 배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인 저도 국악을 계속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또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한 활동을 다른 선생님들과 평가도 하고 교류도 해야 하는데, 그런 자리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국악교육을 하는 선생님들끼리의 모임이 있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내용의 마련은 현장교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현재 많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좋은 교육들이 그냥 그 어린이집의 교육으로만 머물고 있음으로 해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지탁연에서도 이 작은 구슬들을 모아 멋진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악교육에 대해 관심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부족하지만 제가 한 내용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국악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마지막 말에 나는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되었다. 작게는 지탁연 어린이집, 넓게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소고, 장구, 쟁과리소리와 우리 장단에 맞춰 노래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좋은 그림책 소개

우락부락 염소 세형제 이야기

마사 브라운 그림 / 페터 아스뮈센, 요엔 무 글 / 신수진 옮김 / 시공사 / 정가 5,000원

염소 세형제가 산으로 풀을 뜯어 먹으러 가다가 괴물 트를을 만납니다. 트를은 산으로 올라가는 강 위의 다리 밑에 사는, 무서운 눈을 한 아주 못생기고 커다란 괴물이지요.

산허리로 가다가 트를을 만나 생사를 건 결투를 하게 된 염소형제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세형제 중 막내가 맨 먼저 다리 위를 건넌다. "널 잡아먹겠다"는 트를의 위협을 막내는 너무나 영악하게 따돌리고 다리를 건너지요. 막내보다는 약간 크고 건방지기까지 한 둘째도 위기를 모면하고 맨 마지막, 너무나 당당하고 씩씩한 첫째는 트를을 멋지게 물리칩니다. 염소형제들은 무사히 산허리에 도착해 맛있는 풀을 마음껏 먹습니다. 너무나 많이 먹어서 살이 쪼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말이지요.



아이들 그림책 치고는 거친 느낌의 그림은 교사나 부모 모두 이 책에 선뜻 손이 안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이 얼마나 어른들의 잘못된 시각인지는 아이들의 이 그림책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기운찬 내용의 이야기도 재미지거니와 그림도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 그림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먼 북유럽 노르웨이의 산악지대의 옛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거친 그림은 트를로 상징되는 거친 산악지대를 표현하려는 작가의 의도에서 그려졌고 염소 세형제는 자연을 극복하여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낮잠시간 옛날이야기로 몇번 들려주었는데 그림책으로 보여주었더니 아주 재미있어 했습니다. 옛이야기 중에서도 산을 배경으로 하는 옛이야기가 가지는 재미와 건강한 생명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산에 아이들이 좋아하고 무서워하고 궁금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는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요. 호랑이, 도깨비, 귀신, 괴물...

더위와 힘겹게 지낸 우리 아이들에게 시원한 그림책이 될 것입니다.

소개 : 고영미(전달레동산어린이집,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보육조례안

서울시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보육관련 조례(안)이 나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민보련(회장 박정혜)과 총승채 서울시의원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것으로, 이후 공청회등을 통해 검토를 거쳐 의원입법안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서는 국공립 뿐 아니라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자치체의 재정지원을 담고 있다.

본지에서는 발의를 앞둔 『서울시 보육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면 공개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 보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율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제2장 보육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서울시에 보육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복지(1인) 및 유아 전문가(1인), 보육시설 대표자(국공립 3인, 민간 2인, 놀이방 1인), 보육교사(국공립 1인, 민간 1인), 보호자(국공립 1인, 민간 1인, 놀이방 1인),

주민대표(2인), 관계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부서에 근무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 2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및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 및 보조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립시설 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한다.

제3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

제7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공립보육시설은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기존시설로 수용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공립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1개월동안 시, 구청 게시판, 시청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① 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을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운영능력이 없는 경우 조례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개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교체한 경우도 같다. 개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시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 ⑥ 위탁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61세를 초과할 수 없다.
- ⑦ 동일인을 시의 관할구역내에 2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없다.
- ⑧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⑨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연2회 이상 정기 감사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에 붙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감사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⑩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타직종과 겸직할 수 없다.

제4장 보조금의 지급

- 제9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립보육시설(공립놀이방 포함)의 건축비, 장비비, 중·개축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50% 보조한다.
- ②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시설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50% 이상을 보조한다.
- ③ 영유아보육법 4장 22조에 의하여 공립 및 민간, 가정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운영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④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보육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영아 3개반 이상 운영하고 보육료를 지원시설의 단가로 수납하는 모든 민간 보육시설에 한하여 시설 운영비를 보육료의 차액만큼을 지원한다.
- ⑤ 영아 3개반 이상 영아보육 지원에 관해 현 인원을 기준으로 70% 이상 보육하면 지원대상 시설로 간주한다.
- 제10조(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모든 보육시설에 할 수 있다.
- ② 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도 전항과 같다.
- 제11조(보조금 반환명령)** 지원받은 시설이 지원내역과 다른 용도로 지원액을 사용한 경우,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조례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는 지원금을 반환한다.

- 제12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종사자를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 ②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발표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기간이 만료한 것으로 본다.

'우리네 방앗간'을 이용합시다.

'우리네 방앗간'에서는 그동안 교통문제로 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최선 최정사업국장이 손수 운전을 배워 경인지역정도는 배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경인지역의 회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네 방앗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은 지역위원회별로 ① 매달 '우리 떡 먹는 날'을 정하여 신청하기 ② 생일잔치는 매월 동일한 날에 생일떡케익을 신청하기 ③ 영아식으로 미숫가루를 신청하기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용시 주의할 점은 미리 1주일전에 연락을 주셔야 차질없이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주에 한번 정도는 지역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 모색해 봅시다.

품목 : 각종 떡류, 생일떡 케익, 고추가루, 참기름(7,000원/병), 들기름(4,500원/병), 미숫가루(5,000원/Kg).

연장희재

성황리에 끝마친 제2회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편집부

올 여름중 가장 더웠다는 8월초, 1일에서 3일까지 지탁연과 민보련이 공동주최한 '96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가 경기도 홍원연수원과 경주 수련마을에서 분산 개최되었다. 올해로 2회째 맞는 보육교사 여름연수는 보육교사들의 재교육의 기회와 지탁연·민보련의 조직적 연대라는 목표 아래 5월부터 기획에 들어가, 명실상부한 민간보육계가 치뤄내는 연수가 되기 위해 두 단체의 힘을 모았다.

이번 여름연수는 수도권 지역의 보수교육, 승급교육이 겹쳐 160여명 참석이라는 저조한 참여에 반해 교육기회가 비교적 적은 지방에서는 300여명의 보육교사가 참석해 지역별·조직적 동원력과 높은 재교육의 열의를 보여주었다.

서울·경인, 강원도지역의 교사가 참석한 수도권 연수는 작년과 동일한 장소인 홍원연수원에서 적절한 규모로 여유있게 지낼 수 있었고, 충청·전라·경상도 지역의 교사들이 참석한 지방연수는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경치 좋은 경주 청소년 수련마을에서 조금은 소란스럽고 복잡하게 1박2일을 보냈다.



미술 워크샵 후 참가교사들이 만든 작
품과 함께 지탁연 식구들의 기념촬영.



연수는 수도권·지방 모두 교육내용은 동일하였으나 지역에 따라 강사가 다르게 진행된 강의도 있었다. 각 회장님의 개회식에 이어 '아동과 음률활동'이라는 제목하에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노래지도(수도권-박미리)', '알기 쉽고 재미있는 손가락 유희(지방-나하나)'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필요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요구가 많아서 기획한 것이었다.

두번째 교육은 기획강연으로 '교사가 스스로 개발하는 활동모델(수도권-윤선영)', '스스로 연구하는 교사, 체계적 관찰을 통한 영유아연구(지방-김정신)' 시간엔 교사가 자의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강사들은 강조하였다.

저녁식사 후 이번 여름연수의 주제이기도 한 '좋은 보육시설 만들기'에 대한 토론회가 임남희 지탁연 부회장의 발제와 국공립 원장, 보육교사, 민간원장 들의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체 보육시설의 80%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이 나아갈 방향과 그에 따른 종사자들의 제 역할 수행과 상호보완에 대해 강조하였고 무엇보다도 좋은 보육시설은 공보육으로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모든 토론자가 입을 모았다.

이어서 신나는 '한밤의 공동체놀이(수도권-고정미, 지방-정길대)'!

그야말로 몸으로 말하고 흔들고 동료들을 부둥켜 안는 광란의 밤, 그 자체였다. 아이들과 부대끼며 몸과 마음이 피로해진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끼를 맘껏 발산하며 무더운 한여름밤을 땀으로 목욕하기도 하였다.

첫째날의 공식적인 일정을 마감하며 방으로 돌아간 교사들은 기초발제인 '좋은 보육시설 만들기'에 대해 열띤 토론회를 하기도 하였고 다른 지역 교사들과 친교를 나누며 온 밤을 지새기도 하였다.

둘째날은 분반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영아의 놀이와 활동(이경화)', '기관중심의 부모교육의 실제(김미령)'에 이어 '폐활용 재료를 이용한 조형놀이(김향미)', '유아교육을 위한 문학적 접근(김정준)'을 자신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 이번 연수에서 본회 교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사진은 본회 전북지역위원회 교사들의 풍물발표회 모습.



⇒ 아 한밤의 공동체놀이는 즐거워.

교사들은 첫날이 이론중심이었어서 조금은 무거운 반면 둘째날의 실제교육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분반프로그램을 마치고 수도권은 교사 자신의 시간으로 『건강기공체조(정옥)』를 한 후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고 지방은 폐회식을 먼저하고 '수영' 등 자유시간을 가진 후 연수의 막을 내렸다.

이번 연수의 특징은 지탁연 교사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소모임, 지역별 발표, 전시가 좋은 반응을 보인 점과 분산개최로 작년같이 귀가가 걱정이 되어 둘째날 프로그램 중간에 자리를 뜨는 지역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교사들은 성실한 교육자의 본모습을 보여주었고 보육교사의 자긍심과 연대감으로 좋은 보육시설을 만드는 최일선 주체로 나설 우리의 자랑스런 이 보육교사들이 안정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작은 기획

장난감 상담전화

편집부

요즈음은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다양한 놀이감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놀이감에 대해 정확한 인식이나 활용방법 등을 제대로 지니지 않고 있을 때에는 놀이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울 뿐더러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감이 안전하고 좋은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렵지요.

『작은 기획』, 이번호는 장난감상담전화를 소개합니다.

소재지 /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서울여자대학교내 장난감 상담전화

문의 / (02)975-9013

설립년도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후원으로 1990년 5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립목적 /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에 이바지하고자 아동 교육에 관한 정보와 놀이에 필요한 장난감 선정 및 놀이지도 방법 등에 관한 도움을 부모님들에게 드리고자 하였다.

활동내역 / 설립된 1990년 이후부터 연2회 워크숍이나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인 전화상담은 매주 월-금 오전 10:00-오후5:00까지 운영된다. 상담원은 모두 서울여대 아동학 및 유아교육학 전공자로서 석사 및 박사과정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상담에 임하고 있다. 장난감에 관한 상담 및 자녀교육 전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주요사업 / 설립된 후 6년여동안의 상담사례나 특강매의 강의원고 등을 정리하여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자라요』란 책을 출판하였다.

지상강연

『진단! 한국 여성복지』

여성복지예산의 현황 및 개선방향

남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이번 '96년 정기국회를 거남하여 사회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복지 관련 단체에서의 움직임과 함께 여성복지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여성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진단! 한국여성복지』를 주최하고 여성의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본지에서는 정책토론회 발제문중 남인순 사무국장의 발제문을 전문 실습니다.

1. 머리말

이 글은 여성복지 문제를 사회복지예산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여성관련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의 여성복지정책 실행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검토는 여성복지 현실을 점검하고 여성복지정책의 실효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예산 검토를 통해 여성의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여성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복지문제를 예산의 측면에서 고찰하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여성복지의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은 '부녀복지'로 개념화되어 있는데 이는 저소득, 요보호 여성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편적인 여성복지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편적인 여성복지는 모성, 가족, 남녀평등의 영역에서 여성이 충분하게 만족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의는 요보호 여성을 중심으로 정책이 설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여성복지 예산을 분석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둘째, 각 부처예산에 여성과 관련한 사회복지예산이 별도의 범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성통계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도 제출된 바 있다.

셋째, 여성복지 예산의 확충 방향은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설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추계를 제시하지 못했다. 여성복지예산의 추계는 정부가 여성복지 실태를 조사해서 여성복지 실태지도로 작성해 취약한 곳의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을 추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여성복지예산 분석하는데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2. 여성복지예산의 범주와 현황

1) 여성복지예산의 범주

여성복지예산의 범주는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범주 중 여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을 위한 복지예산, 모성보호와 보육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근로여성복지예산과 여성농민복지예산은 분야별 발표에서 다루지므로, 이 글에서는 간단히 언급하였다. 또한 예산구조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예산은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예산의 일반회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사회복지예산과 여성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범주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이 범주에서 여성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예산을 책정했는지 여부, 예산 규모 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복지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① 공적부조 : 생활보호사업, 의료보호사업 등
- ② 사회보험 :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③ 사회복지서비스 : 노인, 아동, 장애인, 요보호부녀자 등 특정 욕구를 지닌 계층과 일반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로서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복지시설 이용 등

④ 관련 복지제도 : 보건, 주거, 고용, 교육 등

(2) 여성노동자와 여성농민의 복지

여성에게 있어 평생평등노동권은 복지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복지제도의 수혜조건이 노동시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접근하는데 제약이 따르거나 노동시장내에서도 차별을 당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복지제도에서도 차별당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은 여성노동자 복지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여성농민의 경우 농촌이라는 조건과 더불어 사회적인 지위가 낮음으로 해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생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농사경영에서 소외되어 있고 여러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지 전달체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3) 모성보호와 보육

모성보호 규정은 여성의 고유한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기능의 보호로서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여성의 건강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여성복지의 중요한 범주이다. 임신부 산전산후 관리, 유급산전산후휴가 등이 범주에 포함되는 영역이다.

육아 및 가정생활의 보호는 남녀모두가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남녀평등 실현에 불가결한 조치이다. 또한 건전한 육아와 노약자 보호의 사회적인 기능도 가지므로 남녀모두와 가정의 보호로서 더욱 확충되어야 하고 사회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2) 여성복지 예산현황

(1) 사회복지예산의 현황과 특징

예산은 정책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여성의 삶의 질 척도는 여성관련 사회복지 예산의 범위에서 설정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여성관련 사회복지제도의 저급한 수준은 곧 여성복지예산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여기에서는 여성복지예산의 실태를 고찰하여 여성복지정책의 한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성복지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현황을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예산의 현황은 국민총생산과 일반회계예산과 비교해서 사회개발예산, 사회보장예산, 보건복지부의 규모와 비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표1>.

<표1> 국민총생산과 사회복지예산 규모 및 대비

단위 : 백만원

항목	'95년	'96년
1. 국민총생산	347,300,000	390,020,000
2. 세출예산		
1) 일반회계	51,881,113	57,962,100
2) 사회개발예산	4,181,385	5,007,481
3) 사회보장예산	2,924,535	3,525,484
4) 보건복지부 예산	1,983,896	2,370,744
3.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율(%)		
1) 일반회계예산	14.9	14.9
2) 사회개발예산	1.20	1.28
3) 사회보장예산	0.84	0.90
4) 보건복지부 예산	0.57	0.61
4.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비율(%)		
1) 사회개발예산	8.06	8.63
2) 사회보장예산	5.64	6.08
3) 보건복지부 예산	3.8	4.09

자료 : 재정경제원, 1996년 예산개요

<표1>을 통해 본 사회복지예산의 특징을 보면,

1996년 사회보장예산인 3,525,484백만원의 규모가 1996년 GNP 390,020,000백만원과 대비했을 때 1%에도 못미쳐 유럽복지국가의 GDP 대비 8-9%의 복지비 지출에 비하면 매우 인색한 실정이다. 보다 큰 범주인 사회개발 예산의 경우에도 정부예산 대비 8.6%에 불과한 실정이다(GNP 대비 1.3%). 이는 스위스(63%), 독일(47%)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12.3%), 스리랑카(18.6%)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사회복지예산의 특징과 한계는 여성복지예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2) 여성복지예산의 현황

① 보건복지부 예산과 부녀복지예산

먼저 여성복지서비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부녀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 여성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크게 <표2>와 같이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여성복지예산은 인구대책분야와 사회보장분야에 주로 속해 있다. 부녀복지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과 사회보장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표2>와 같다. '95년 복지부 일반회계예산이 1,983,896,317천원이고 이중 부녀복지예산이 10,394,833천원으로 0.52%를 차지하고 있고, '96년에는 일반회계예산이 2,370,743,939천원이고 이중 부녀복지예산이 11,471,348천원으로 0.48%를 차지하여 복지부 예산 중에서도 그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에서도 여성부분이 경시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부녀복지예산은 다시 사회보장 예산과 대비해 보면 '95년에 0.6%, '96년에 0.56%로 부녀복지예산의 비중이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예산중에서도 부녀복지예산의 획기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97년 예산안 중 부녀복지예산으로 요구한 27,621,000천원('96년 대비 118.8% 증액)은 전면 삭감없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표2> 보건복지부 예산 총괄 및 부녀복지 규모

단위: 천원

항목	'95년 예산	'96년 예산	증감
1. 보건복지부 예산	1,983,896,317	2,370,743,939	386,847,622
1)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	9,419,975	8,163,502	-1,256,473
2)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255,255,305	311,610,145	56,354,840
3) 사회보장	1,719,221,037	2,050,970,292	331,749,255
2. 보건복지부예산에 대한 비율(%)			
부녀복지예산	0.52	0.48	
3. 사회보장예산에 대한 비율			
부녀복지예산	0.6	0.56	

참고: 재정경제원, 1996년 예산개요

가) 부녀복지예산의 연도별 추이 및 사업별 내역

지금까지 부녀복지예산의 양적인 측면을 평가했다면 사업별 내역을 보고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고자 한다. '95년, '96년에 걸쳐 부녀복지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보면 <표3>과 같다.

<표3> 부녀복지예산의 연도별 추이와 사업별 내역(일반회계)

단위: 천원

항목	'95년 예산(구성비)	'96년 예산(구성비)	증감
1. 부녀복지시설운영	4,827,820	5,481,796	653,976
모자시설	2,311,959	3,096,188	784,229
선도보호시설	2,515,861	2,385,608	-130,253
2. 할머니특별지원금	702,000	575,000	-127,000
3.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4,700,615	5,040,473	339,858
4. 요보호여성발생예방	5,123	5,123	0
5. 성폭력상담소운영비	0	111,326	111,326
6. 부녀복지시설실태조사	623	623	0
7. 부녀지도사업평가	4,416	4,416	0
8. 여성단체운영지원	95,350	195,350	100,000
9. 일군위안부실태조사	3,574	0	-3,574
10. 기타 행정경비	55,312	57,241	1,929
11. 저소득모자가정지원	0	(3,000,000)	
계	10,394,833	11,471,348	1,076,515
		(3,000,000)	

* ()는 재정투융자 예산임

참고: '95년, '96년 보건복지부 부녀복지사업지침

<표3>을 통해 부녀복지예산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첫째, 요보호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발생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전문상담 및 직업훈련, 사회복귀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정착, 보호시설 및 자활시설 확충을 위한 제정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요보호여성 범주에 장애인여성과 노인단독가구주를 포함시키고 점차 일반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불가피한 이유로 가출한 여성 등 빈곤한 여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빈곤한 여성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제도를 -미혼모가구, 단독노인가구, 독신가구 등-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내용이 상업고등학교까지의 자녀학비, 아동보육비인데 자녀교육비 보조적용을 인문고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저소득모자가정생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어 30억 중 10억을 모자가정에 비해 가구주가 적은 남성가구주(여성가구주의 1/8)에게 지원하는 것은 복지영역에서도 남성이 생계부담자라고 하는 가부장제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여성단체 운영지원('96년 약 1억9천만원)은 내무부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와 같은 관변단체에 100억원을 지원하려는 규모에 비해 2%도 채 안되는 규모에 불과하다. 여성단체 지원을 재경원에서 관변 복지단체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낭비요소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여성단체의 지원은 복지부 목적사업을 민간 여성단체가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를 받는 차원이므로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회복지사업의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생활보호사업

생활보호사업을 여성복지와 관련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보호예산을 <표4>에서 보면,

<표4> 생활보호예산의 연도별 규모 및 내역별 규모

단위: 천원

항목	'95년 예산	'96년 예산	증감
1. 생계보호	224,419,788	305,539,576	81,119,788
2. 생활보호	1,418,634	1,517,897	99,263
3. 교육보호	46,935,787	53,549,120	6,613,333
4. 부랑인시설보호	8,888,632	9,776,665	888,033
5. 의료보호	292,416,144	342,893,680	50,477,536
계	574,078,985	713,276,938	139,197,953

참고: 재정경제원 1996년 예산

생활보호사업은 노동무능력자에 대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능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정원오:1995). 1995년 생계보호 수준은 1인당 78,000원이다. 보호대상자를 성별로 나누어보면 거택보호의 경우 남성가구주가 61,165명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가구주는 114,377명으로 65.2%를 차지하고 있다. 자활보호의 경우 남성이 53.9%, 여성이 46.1%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은 자활보다는 상대적으로 거택보호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의 빈곤화 현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생계보호비의 수준인 1인당 78,000원은 생존조차 하기 어려운 최소수준이므로 이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한국노총이 발표한 '95년 1인 최저생계비는 691,098원이다. 복지부는 97년 저소득층 생활보호 예산으로 510,773,000천원을 내놓았다. '96년보다 41.6% 증액했지만 생계비 지원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증액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복지예산 실태

가) 여성노동자 복지예산

노동부 예산은 크게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직업훈련, 직업안정), 사회보장(의료보험, 근로자복지)으로 나눈다. 사회복지의 수혜자격은 노동시장의 수행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 예산은 그런 의미에서 광의의 사회복지예산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 예산 중 여성복지예산(직장보육시설, 고용평등의식 고취, 근로여성 특별보호, 일하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보면 <표5>와 같다.

항목	'95년	'96년	증감
1. 노동부예산	211,212,115	268,175,834	56,963,719
1) 근로복지예산	76,920,457	110,067,665	33,147,208
2) 여성복지예산	3,500,000	4,200,000	700,000
(노동부예산대비)	1.66%	1.57%	
(근로복지예산대비)	4.55%	3.82%	

참고 : 재정경제원, 1996년 예산

노동부 예산이 일반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6%('96년)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여성노동자복지예산이 노동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5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근로복지예산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였다. 그리고 직업능력과 직업안정 예산에 여성노동자의 직업능력과 직업안정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뽑아내지 못했는데 이 분야는 매우 취약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노동자의 고용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은 매우 중요한 복지과제이다. 고기능 여성직업훈련기관의 확충, 주부재취업프로그램

개발 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재정 확보가 우선과제이다.

나) 여성농민 복지예산

농수산부 예산은 크게보면 농어촌구조개선, 농가소득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성농민과 관련한 예산 항목은 찾아볼 수가 없다. 농수산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 중 생활환경분야의 예산을 여성농민을 위한 복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성농민을 가사전담자로 보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③ 모성보호 및 보육예산

가) 모성보호사업

모성보호 사업은 복지부 사업 중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 사업 중 모자보건관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예산 내역을 보면 <표6>과 같다. 그리고 의료보험에서 분만급여와 요양취급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했을 때 분만비, 분만수당을 주는 것이 전부다.

(가) 모자보건관리와 모성보호

<표6>과 같이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으나 모성보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한 것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으로 주 내용은 모자보건 수첩제작, 예방접종약품구입, 자치단체경상보조를 통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검진에 대한 보조가 대부분이다. 여성이 미래세대를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여성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은 국가가 건강하게 되는데 큰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모성보건과 관련한 지표를 보면 산전진찰 수진율은 전국적으로 96%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군이 시보다 산전진찰 수진율이 10% 정도 낮다.

<표6> 인력개발 및 인구대책 예산의 연도별, 내역별 규모

항목	'95년 예산	'96년 예산	증감
1. 가족보건	3,037,288	3,041,021	3,733
2. 가족계획시설	3,401,633	2,357,966	-1,043,667
3. 모자보건관리	2,981,054	2,764,515	-216,539
계	9,419,975	8,163,502	-1,256,473

참고 : 재정경제원, 1996년 예산

분만율도 95%로 매우 높은 편이나 도농간에는 17%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 산전진찰의 내용도 권장하는 일정대로 산전진찰을 완료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산후관리 수진율은 64.5%

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는 정부가 산전관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목표나 실적을 정해두고 있지만 사후관리는 아무런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임신과 분만에 대한 보건 교육이 필요한데 '94년 실적을 보면 5개소 모자보건센터(전국에 71개)를 통한 교육정도가 설치되어 있어 미미할 뿐더러 농촌에서는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곳이 거의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았을 때 모자보건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아울러 농촌 지역의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배정이 오히려 시급하다 하겠다.

(L) 의료보험과 모성보호

현행 의료보험법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요양 취급기관에서 분만할 때는 분만급여를 받는다. 단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요양취급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할 때는 분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분만한 경우에는 분만수당을 5만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전후 진찰에 대한 비급여, 자궁암검진 등 예방서비스의 비급여 등 모성보건 관련 보험급여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산전산후휴가 90일에 대한 소득보장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농업분야까지 포함해 의료보험 급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국가 차원의 모성보호를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갖는 것이다.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모성보건과 관련한 보험급여를 신설하는 일이 필요하다. 출산은 사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분만의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분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암(자궁암, 유방암)의 조기검진을 위한 검사를 보험급여화해야 한다. 또한 산전산후휴가 90일에 대한 소득보장을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보험을 통합해서 불균형한 조합간의 재정을 통합해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높여 본인 각출료를 낮추어야 한다.

나) 보육예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대응하여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보육사업은 급속도로 산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조치를 통해 가족문제를 해결해 왔던 여성이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육예산의 연도별 증감추이와 내역을 보면 <표7>과 같다.

<표7> 보육예산의 연도별 증감추이와 내역

단위 : 천원

항목	'95년 예산	'96년 예산	증감
복지부예산	1,983,896,317	2,370,743,939	
보육예산	83,405,556	110,349,456	26,943,900
(복지부예산 대비)	(4.2%)	(4.65%)	
1. 시설운영	64,441,597	89,368,461	24,926,864
중사자인건비	43,708,827	62,573,331	18,865,504
중사자수당	9,154,926	4,553,450	-4,601,476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		32,858,721	32,858,721
보육아동급식비	7,239,218	0	-7,239,218
시설관리운영비	3,714,962	0	-3,714,962
-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	138,096	336,432	198,336
농어촌소재보육시설차량운영비	485,568	552,348	66,780
2. 시설보강	18,525,466	20,432,552	1,907,086
- 시설신축	8,731,800	9,147,600	415,800
- 시설증개축	2,182,850	3,049,200	866,350
- 시설개보수	855,716	914,760	59,044
- 사회복지관부설설치	577,500	1,050,000	472,500
-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	6,125,000	6,125,000	0
- 장비비	52,500	105,000	52,500
3. 행정경비	483,493	639,656	156,163

참고 : 재정경제원, 1996년 예산

전체적으로 보육사업의 예산은 지난 2년간 꾸준한 증가를 해왔다. 이것을 각 사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5년에서 '96년 사이 보육예산은 32.3%가 증가하였다. 여타의 사회복지부문에 비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증가의 주요요인으로 '저소득층아동의 보육료' 지원이 '96년부터 신설되면서 증가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계속 증가하되 이는 점차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여성관련 사회복지예산의 확장방향

1)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훈련, 주부재취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수혜조건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을 때 매우 불리하다. 의료보험은 전국민 개보험화가 진행되었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그 수혜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제한적이다. 따라서 복지 수혜자격은

노동시장의 수행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구조적으로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 촉진과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기능 여성직업훈련원 증설, 주부 재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요보호여성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부녀복지예산의 주요 내역에서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95년 현재 48,809세대인 저소득모자가정(월소득 4인가정 기준 757,000원)의 지원내용에 있어 자녀교육비 보조 적용을 현재 상업고로 제한하고 있는데 인문고까지 확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업고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 변화된 교육의 욕구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미혼모, 윤락여성,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 등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상담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사회복지자를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및 학교교육연계,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금 융자지원 등의 상담과 사회복지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 모자가정과 노인단독가구의 실태조사 및 생계비 지원, 정신대할머니 생계지원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3) 모성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농촌지역의 모자보건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산전후 건강관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외, 자궁암 검진 등 예방서비스의 보험급여 적용,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여성까지 포함하여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확대하고 소득보장을 단계적으로 의료보험에서 부담해야 한다.

4) 여성농민 복지예산의 개념을 정립하여 농어촌특별세 항목에서 여성농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소 치료기능의 확대와 면단위 종합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여성농민을 위한 복지 접근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민 쉼터, 모자보호 및 자립시설을 군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보육예산은 표준보육단가 설정시 교사인건비를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하고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보육단가를 분리하고 표준보육단가와 소득에 따른 부모부담의 차액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수요대상을 육아문제로 취업하지 못하는 잠재적인 수요층까지 포괄해서 확충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방과후보육, 24시간보육, 장애아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보육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건강하게 삽시다

-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 -

어린 아이의 똥에 대하여(1)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똥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단 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줌, 침, 피, 가래 등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몇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몸 안에 있었던 것인데도 우리의 몸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부터 더러운 것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사고경향은 건강한 몸을 지켜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나쁜 습관을 낳게 된다. 특히 이제 사물의 속성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생활습관을 어른들의 교육에 의해 배워나가야 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기 힘든 결정적인 선입견을 심어주기 쉽다. 똥을 비롯하여 오줌, 피, 침 등은 우리의 몸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많은 정보와 메시지를 준다. 무조건 더럽고 멀리하기 이전에 이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는 중요한 것들이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 똥이란 무엇인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몸은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먹을거리를 먹으면 몸 안에서 대사과정을 거치고서 마지막으로 '똥'의 형태로 배설을 한다. 배설하지 않게 되면 그 몸은 예외없이 죽게 된다. 즉 몸은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몸을 먹을거리로 취한 다음 그 결과를 '똥'의 형태로 만들어서 다시 우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그 똥은 다시 다른 몸의 먹을거리가 되고, 우리의 똥을 먹고 자란 몸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몸을 위한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먹고 똥을 싸는 과정은 몸과 몸이 서로 나누는 과정인 것이며, 우주의 대순환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우주의 대순환 과정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 요즈음 모든 아이들은 원래의 똥의 의미를 알래야 알 수 없는 구조적인 무지의 틀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즈음의 아이들은 거의 예외없이 똥은 더러운 것, 악취가 나고 불결하고 손 대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불과 몇초 전만 해도

자신의 몸 안에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이들의 이러한 생각은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다. 지금의 어른들이 자랐던 시절하고도 다른 생활환경에서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은 심지어 똥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똥을 기피하다가 심한 변비 중에 시달리는 아이도 심심찮게 많은 편이다. 반면에 지나치게 예민해져서 장의 운동이 불규칙해져서 어린 나이에 벌써 과민성 대장이 되어버린 아이들도 있다.

아이들은 일생 중 가장 성장이 왕성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꼼꼼히 생각해보면 영양가 많고 칼로리 높은 음식이나 보약이 아이를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음식이나 보약 따위들은 건강하게 자라는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극히 적은 역할만을 담당할 뿐이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잘 먹이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아이들이 똥, 오줌을 잘 싸게 해야 한다. 모든 만물의 이치가 먼저 비우고 나서 채우는 것이다. 먼저 깨끗하게 비워진 몸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자연의 섭리가 아이들을 보육할 때, 그리고 아이들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 몸으로 체득한다면 아이는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이나, 소박한 음식으로도 건강하게 자란다고 확신한다.

아이들에게 먼저 자신의 똥을 잘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잘 먹는 것만큼 똥을 잘 싸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자. 먹는 즐거움 못지 않게 똥을 잘 싸는 것의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우리가 약간만 신경을 써보면 아이들은 아주 쉽게 이러한 우주 대자연의 섭리를 몸으로 느끼게 된다. 즉 자신의 똥구멍에서 나오는 똥이 신기하다는 것, 어째서 자신의 몸에서 이러한 똥이 나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통하여 자신의 몸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가지게 된다는 것, 맛난 것을 많이 먹었을 때보다 똥을 잘 싸올 때가 훨씬 기분이 좋다는 것, 날마다의 배변을 통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소박한 생활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 등등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모든 일의 첫번째에 속하는 일이다. 그 일은 먼저 자신의 창자를 깨끗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그것은 똥을 잘 싸는 것이다.

2. 똥을 만들어내는 큰 창자(대장)에 대하여

우리 몸에서 큰 창자는 그 운동이 대단히 느리고 정신신경작용이 몹시 민감한 장기이다. 큰 창자의 길이는 약 1.3m로서 소장이 끝나는 맹장에서 시작하여 항문에서 끝난다. 큰 창자는 맹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상행결장, 배꼽을 중심으로 아랫배를 가로지르는 횡행결장,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하행결장, S상결장을 거쳐 항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큰 창자의 생김새에 따라 큰 창자의 운동은 우리가 평소 먹는 먹거리의 내용, 먹는 양과 방법, 옷 입는 습관, 앉고 걷고 누는 자세, 마음의 상태 등등

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무수한 요인들은 큰 창자에서 살고 있는 무수한 수의 장내 세균들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큰 창자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똥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대장에는 100종류의 세균들이 100조 가량 살고 있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보다 거의 두배에 가까운 수의 세균이 똥이 만들어지는 대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세균들의 존재에 의해서 우리 몸과 정신의 건강은 유지된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세균들을 우리 몸에 유익한 균, 나쁜 균으로 습관적으로 나누는 습관이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위험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이며, 우리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 이들 수도 없이 많은 종의 세균들은 우리의 대장 안에서 우리의 좁은 인식으로는 도저히 따라 잡을래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이를 일으킨다. 변이를 일으키는 자세한 원인들, 조건들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때마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 세균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마음놓고 먹을 수 있고, 또 똥을 쌀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세균들은 각종의 비타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소장에서도 흡수하지 못한 식물이나 해초류의 섬유질을 분해해서 재흡수하게 하며, 각 장기에서 나오는 독소들을 무독화하는 등 중요한 작용들을 하는 것이다.

큰 창자의 건강상태는 어쩌면 이들 100종류에 해당하는 100조에 가까운 장내 세균들의 평화와 안녕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들 장내 세균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이들과 우리의 60조에 가까운 세포들이 평화롭게 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나약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육체의 제한성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3. 큰 창자의 요구와 행로

1) 적게 먹어야 한다.

우리의 허가 원하는 먹거리의 양과는 별도로 몸이 요구하는 먹거리의 양이 있다. 몸이 원하는 양 이상의 먹거리를 섭취하게 되면 큰 창자의 처리능력을 넘어서서 창자에는 항상 처리되지 않는 음식물의 찌꺼기가 고여있게 된다. 이 처리되지 않은 음식의 찌꺼기는 장내 세균들의 지나친 활동의 원인이 되고 장내 세균의 지나친 활동의 결과 분비되는 독소들로 하여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자가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 내부에서 자가중독이 되는 비율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질병의 원인에 비해 20배 이상을 넘는 것이다. 현대의 대표적인 만성피행성 질환들인 류머치스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비만, 정신병, 아토피성 피부염, 각종의 알레르기 질환 등등은 거의 대부분이 장내 세균에 의한 자가중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소박한 먹거리만 먹어야 한다.

기름지고 소화하기 쉬운 소위 영양가 많은 음식들은 우리의 장운동을 둔화시켜서 장 내에 숙변이 고이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만병일독(萬病一毒)이라는 말이 의미하듯 만가지 병의 원인이 숙변이라는 한 가지 독에서 비롯될 만큼 숙변은 무서운 것이다. 평소 우리의 입맛을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회복함으로써 소박한 음식을 감사하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더구나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인공적인 맛을 먼저 알아버리게 되면 이는 모든 면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킨다.

3) 옷을 두텁게 입지 말아야 한다.

예전에 우리가 피부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살갗은 몸 내부의 각 장기의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춥다고 옷을 두텁게 입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살갗을 통한 몸 안의 독소들이 나가지 못하게 되어 간장의 기능이 많이 손상되고, 간장의 기능이 손상되면 큰 창자의 운동이 약해진다.

4)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 걸어다니는 집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집의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조그만 발이다. 따라서 집 전체가 집 안의 여러 기능들이 온전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발이 편안해야 한다. 자연상태에서 우리의 발은 땅과 13도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이다. 이 각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몸은 불안정하게 되어 각 몸의 기능들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나빠지게 된다. 불편한 신발은 직접적으로 큰 창자의 연동운동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큰 창자의 곳곳의 피들기를 나쁘게 하여 그곳에 세균의 이상증식을 초래하여 각종의 염증을 일으키게 한다.

5) 폭신한 요에서 자지 말아야 한다.

폭신한 요에서 자게 되면 자는 동안 우리의 척추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서 고정되기 쉽다. 그러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의 작용이 둔해져서 창자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가급적이면 딱딱한 나무바닥에서 자는 것이 좋다.

6) 자연의 순리를 무시한 냉, 난방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지나친 냉, 난방은 우리의 피부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간장과 콩팥의 기능을 떨어지게 한다. 이는 다시 창자의 운동에 영향을 미쳐서 장 내에 숙변이 고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7) 화학약품과 변비약, 잦은 관장약의 사용을 피한다.

화학약품의 대표적인 것은 각종의 항생제와 화학요법제들이다. 이것들은 장내 세균들

의 약품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약품에 의해 장내 세균의 변이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증가시키게 된다. 변비약은 일시적으로 설사를 시키지만 인위적인 설사의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장점막에 보이지 않게 작은 상처들을 넘으로써 오히려 만성변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관장약의 잦은 사용은 직장에 자극을 줌으로써 후에 치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8) 규칙적인 배변습관을 가진다.

어릴 때부터 먹으면 싸는 것이라는 순리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원래는 하루 세 끼를 먹으면 세 번 똥을 싸고, 한번 먹으면 한번 똥을 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대인의 생활환경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어린 아이는 하루에 2-3번의 배변을, 어른의 경우 뚱뚱한 사람은 하루 2-3번, 보통 체격의 사람은 1-2번, 여원 사람은 하루에 한번 정도 규칙적인 배변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똥을 싸고 싶을 때는 잘 쌀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배고픈 것은 다소 참아도 똥 마려운 것은 참아서는 안된다. 똥을 싸는 것은 중추신경의 배변반사에 의한 것이므로 배변 반사의 자극에 의해 변의를 느끼는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이다. 그 때를 자주 어기게 되면 직장의 운동이 무척이나 둔해져서 똥을 싸고 싶어도 똥을 쌀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편집자주 :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어린이평화학교 어린이건강교실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건강교과 실습을 전달하고 있는 자율학습 모임입니다. 어린이 몸의 요구와 행로, 어린이 몸의 구조와 특성, 어린이 식생활과 어린이 몸과의 관계,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어린이 건강 증진과 어린이 성인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는 한몸짓기건강요법-몸의학건강증진법에 입각해서 몸 건강체조, 민간자연건강요법, 자연산 식이요법 등을 어린이들 스스로가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어린이건강교육연구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할 곳은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81-28 / 전화 : (02)882-4705, 팩스 : (02)878-4624입니다.

세상읽기

눈물 젖은 8.15

편집부

8월 한달간 방송과 언론은 무척이나 짝퉁한 재미를 보았을 터이다. 연일 쏟아지는 한총련 통일대축전 집회에 대한 소식은 학생운동이나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건 없건, 찬성하건 반대하건 모든 이들의 시선을 뉴스와 신문에 잡아두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것들이었으며, 이를 바라보는 온 국민들은 마치도 무협지 소설을 읽거나 전쟁영화를 보는 듯한 흥분과 긴장으로 대해야 했다.

이번 일로 많은 이들이 분개한 것은 물론 학생들의 폭력시위(?)이기도 했지만 더불어 광주항쟁때의 진압이 떠오른다는 어느 독자의 한숨 섞인 투고에서처럼 엄청난 공권력의 무자비한 횡포와, '언론은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또다시 입증이라도 하듯 덩실덩실 그 장단에 춤을 추다 못해 앞서서 권력의 편을 들어줬던 각 언론의 태도였다.

5, 6공 시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반영하듯, 올해의 끔찍스럽던 광복절 사태는 문민정부(文民政府)를 맹민정부(盲民政府)로 바꿔놓기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집회장소였던 연세대는 전쟁터 그 자체였고, 학교측에서는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몸을 피하며 지냈던 과학관과 종합관 중 종합관을 영구보존할 생각을 이야기하며 현재 2학기 동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인즉슨 학생운동의 엄청난 폭력성을 길이길이 남겨 교훈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소위 교육자라는 이들이 그 건물을 실제 이용하는 수많은 연세대생들의 입장을 한번도 고민하지 않고 자신들의 즉흥적 감정에 사로잡혀 건물을 폐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그나마 다른 교육시설보다 월등히 넓은)이 학생수나 강의수에 비해 넉넉치 못한 강의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연세대에선 그나마 있던 공간마저 "역사적 교훈"을 보존하기 위해 폐쇄한다면 가뜰이나 비좁고 모자라는 강의실의 부족분을 어떻게 메꾸는 것인가.

또한 그 의도도 그렇다. 처음부터 학생들이 그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으리라. 이제껏 학원시위 진압방식과는 엄연히 비교되는 최대의 물량동원-11

대의 헬리콥터로 최루액(신체에 어떤 부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도 없었다)을 뿌려댔고 포물선을 그려대며 지랄탄은 수도 없이 떨어진다. 그러다 상부의 지시가 떨어지면 진압복과 진압봉, 방독면을 쓰고 철저히 무장한 이들이 학생수의 몇배, 몇십배로 달려들어 남학생이고 여학생이고 잡느라 혈안들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방위하기 위해 학생들은 어디로든 피해야 했을 것이고 그러다 우연히 모여든 곳이 과학관과 종합관이었으리라.

고양이도 쥐를 잡을 때에 반드시 퇴로를 열어준다고 한다. 도망갈 곳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쥐도 필사적으로 고양이에게 덤벼들어 도려 고양이에겐 해를 입히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쟁시에 적군 대하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항의를 받았듯이, 정부는 사방이 막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어버린 학생들에게 응급약품은 커녕 급한 환자 응급처치라도 하겠다고 나선 의료인들의 발길을 막고 생리중인 여학생들을 위한 여성용품의 반입마저도 불허하는 물지각한 행태까지 보였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허기와 더위, 진압과정에서의 부상으로 울어야 했고, 학교 안까지 우여곡절 끝에 달려갔던 부모들은 건물 안에 갇힌 자식들의 "엄마, 집에 가고 싶어요"란 글씨를 보며 무너지는 역장과 학교 안에 남아있는 매캐한 냄새로 그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울어야만 했다.

이번 일로 정부와 공권력은 처음 큰 집회에 참석했던 저학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도 되겠지만 아울러 잊지 못할 분노를 안겨주는데도 성공했을 것이다.

그렇게 눈물로 찢들었던 광복절이 열흘도 더 지난 지금은 건국대 사태이후 최대인원이 구속되고 검찰은 연일 수십군데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압수수색과 학생연행을 해대고 있다. 그리고 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되었던 여학생들이 연행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보도와 독자투고가 신문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칼을 쥔 자는 칼로, 펜과 마이크를 든 자는 펜과 마이크로 한총련 죽이기에 바쁘던 8월은 이제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학생운동권에서 그리도 오랫동안 처벌을 요구하던 전·노씨의 선거공판이 이어졌다.

세상은 돌고 돈다.

5.18항쟁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내세우며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을 있는 힘껏 두들겨 패던 정부와 언론은 이제 5.18을 낳은 두 전직대통령이 선고받는 명장면을 역사적 심판이라며 높이 높이 치하하고 나서고 있다.

8월 한달은 뉴스와 신문이 유난히도 기다려지던 달이기도 했지만 또다시 우리의 젊은 이들이 학생과 전경이라는 적 아닌 적으로 만나야했던 상황이 서글썩던 달이기도 했다.

육아일기

유빈이의 육아일기, 그 첫번째

나온미 / 전 오손도손어린이집 교사

이름 : 이유빈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96년 4월 17일(음력 2월 30일)

보호자 : 아빠 이선홍(30세, 회사원)

엄마 나온미(30세, 오손도손 어린이집 전직교사)

특징 : 엄마 축소판이며 왼쪽 볼에 보조개 들어감

유빈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낳는 순간까지를 돌이켜 보면 유빈이에게는 미안하지만 불안해 하고 불편해 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했던 것 같다. 아기를 갖는 것이 급하지 않았기에 평소 음주가무를 즐겼는데 갑자기 알게 된 임신사실에 걱정이 앞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진찰받으러 들렀던 동네 병원에서는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출산 예정일을 알려주기는 커녕, 임신인데 자궁내에 아기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궁의 임신일지 모른다고 했다. 걱정 속에 일주일을 보낸 후 다시 병원에 들렀더니 이번에는 아기씨는 보이는데 심장이 안 뛰냐며 계류유산일지 모르니 일주일 후 다시 오라고 했다. 너무 속상해서 영영 울었다. 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라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다. 얼마전 지역교사들과 함께 놀러갔던 일-밤새워 너무 재미있게 놀았음-까지 떠올리며 불안해 했다.

주위에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산부인과 전문 병원을 가보라고 했다. 이렇게 한 두주 지내는 사이 입덧을 시작했고 병원을 옮긴 후 초음파검사 결과 임신 3개월에 아기는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시를 놓았지만 입덧은 더 심해졌고 그로 인해 남편이 밉고 원망스러웠다.

입덧이 잦아들면서 부터는 조금씩 불러오는 배가 부담스러웠다. 주위에서 배를 보고 크기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하면 지나치게 신경이 쓰였다. 8개월이 되면서 배가 많이 부풀었고 아기가 밤을 낮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다. 어떤 자세로

누워도 힘이 들었고 남들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다지만 당장이라도 낳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9개월이 되어 병원에 갔던 날 마지막으로 초음파검사를 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태아의 크기가 작다며 출산예정일을 이주일이나 미루는 것이다. 이제 한달만 참자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는데 정말 눈 앞이 캄캄했다. 병원에서 울기 시작하여 저녁 내내 울었고 위로하는 남편에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퍼부어댔다.

아기는 나올 때가 되면 나올 것이라는 결론하에 좀더 쉽게 낳을 수 있도록 많이 움직이기도 했다. 그 덕분인지 예정일을 일주일 앞두고 아랫배가 불편한게 심상치 않아 밤늦도록 짐을 싣 후 잠이 들었다. 새벽에 양수가 흘러 병원에 갔고 10시간 후에 튼튼한 아기를 낳았다.

분만실에 누워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보는 아기를 보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머리통이 길어 솔직히 못생겼던 유빈이는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엄마 아빠에게는 한없이 소중하고 예쁘다. 요즘 가끔 남편이 유빈이를 안고 하는 말이 있다. "유빈아, 이렇게 예쁜 아가가 자라고 있는지는 모르고 엄마가 얼마나 어찌구 어찌구..."

임신을 하게 되면 주위로 부터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라고 한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임신부라도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처지와 아기에 대한 생각 등으로 불안해 하고 우울해 한다. 또한 태교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유빈이의 태교를 생각하면 보육교사였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바로 좋은 태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과 정신없이 지내면서 기분전환을 할 수 있었다. 동화 읽기, 노래 부르기, 율동하기, 만들기 등 아이들과 함께 했던 활동들이 자연스레 태아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이들과 나날이 불러오는 배를 만져보며 성교육도 하고, 아기를 상상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명이 소중하고 신비롭다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다.

예쁜 아기 사진을 보지 않아도 늘 눈 앞에는 천진스런 우리 아이들이 있었다. 일부러 태교한다고 신경쓰지 않았어도 엄마의 일 속에서 자란 유빈이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웃는 건강한 아이임을 자랑스레 말한다.



막아△별곡

다우리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 하나 - 그냥 먹어

점심식사 시간이다. 모두들 둘러 앉아서 오물오물 맛나게 먹고 있다.

이 모 : 지용아 꼭꼭 씹어서 먹어라.

지 용 : 예. 꼬옥, 꼬옥, 꼬옥...(소리를 따라한다)

이 모 : 아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이호 씹어야지.

지 용 : 예. (또 다시) 꼬옥, 꼬옥, 꼬옥...

이 모 : 지용아, 그냥 먹어.



영아전담 어린이집인 다우리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를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모'라고 부릅니다. 연령이 어린 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지요. 때문에 본 『우리네 아이』에서는 '이모'라는 호칭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야기 둘 - 백문이 불여일견

점심시간, 윤희는 오랫동안 작은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다.

윤 희 : 이모, 왜 먼선이는 먹여주세요?

이 모 : 아직 숟가락질을 잘 못해서 도와주는 거야.

윤 희 : 이모, 강편이는 왜 안먹어요?

이 모 : 천천히 먹는 중이야. 강편아 어서 먹어라.

윤 희 : 이모, 반찬에 왜 마늘이 있어요?

이 모 : 먹는거야.

윤 희 : 이모, 매워요. 마늘이에요(울상이다).

이 모 : 아니야, 먹어도 되는거야.

윤 희 : 이모, 너무 매워서 못먹어요.

이 모 : 먹으려니까.

이렇게 말하고 윤희 숟가락 위를 보자 정말로 커다란 통마늘이 하나 놓여 있다

이 모 : 아이쿠, 진짜 마늘이네. 윤희아, 미안해. 이모가 보지도 않고서 아니라고 했구나. 상 위에 내려놓아라.

잠시후, 그 마늘이 무엇인지 궁금한 효재와 진솔이가 한번씩 먹어보고 나서 온갖 인상을 찡그리고 나서 살며시 내려놓는다. 이모는 못본 척 슬그머니 외면했다. 하 하 하.



무궁해 여름캠프를 가는 아이들

박공미 / 진달래동산어린이집

진달래동산에 들어온지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었다. 아이들은 '선생님, 선생님'하고 불러보지만 아직도 나 스스로는 듣기에 민망하고 어색하기만 한 존칭. 게다가 아이들과 처음 가보는 여름캠프는 내겐 너무나 긴장되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다.

맛춘 도시락을 찾느라, 뒤늦게 진달래 문을 들어선 나는 제일 먼저 부산하게 짐을 챙기는 선생님들과, 처음 입는 수영복과 새 옷, 쟁이 달린 모자를 톰내면서 들떠있는 아이들을 보았다. 세살부터 동생을 따라 온 초등학교 1학년 형들까지 모두 합해야 열네명. 선생님들 네명. 자원봉사 이모 한명 뿐인데 진달래를 흔드는 들썩임은 낮밤으로 꿈에 가보았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었다.

지난 밤 윤교는 어떻게 그 지루한 밤을 보냈을까?

"엄마! 나 집에 안갈래. 캠프 가야 하는데 왜 집에 가! 응? 진달래에 있어야 돼."

하룻밤 더 자고 가는거야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해 막무가내로 버티다, 엄마 손에 끌리다시피 집에 갔던 윤교의 밤. 그 기나긴 밤을 뒤로 하고 새로 뿔은 15인승 승합차를 폭폭 채우며 사탕도 롤라도 껌도 과자도 하나없이 가벼운 배낭을 메고 우리는 온하선생님의 외갓댁인 문산으로 신바람나게 달린다.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 논길을 접어드는 그 길이 오히려 솔직하고 정답고 가슴 뽕뽕이 다가온다.

'월롱', 참으로 특이한 이름이라는 생각을 하며 들어서는 시골집. 다 쓰러져가는 폐허 같은 집이라고 온하선생님은 표현했지만 있을 것은 다 있는, 웅색해보이면서도 갓출 것은 다 갖춘 그런 풍성함이 있었다.

처음으로 흙을 밟은 아이들. 대문으로 들어설 생각도 못하고 뽕뽕을 뛰어들며, "선생님! 수박이에요." "참외도요!" "오이, 토마토, 가지, 고추도 있어요!"

감히 따올 생각은 엄두도 못내지만 환희에 차서 터져나오는 함성 만큼은 어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 그래, 내일 우리 손으로 직접 따서 맛있게 먹어보자!"

이루지 못할 약속(후에 알게 되겠지만)을 큰 소리치며 우린 물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한다. 외할머니께서 직접 따주신 수박 한덩이와 참외를 들고 강가로 마냥 뛰어가는데 강 바닥을 보는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키높은 물풀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나 있는가 싶었더니 바닥은 진흙으로 덮여 우리가 기대했던 호수같이 맑은 물은 전혀 아니었다. 아이들 모두가 주춤거린다.

"선생님, 어떻게 들어가요?"

모두가 울상인데, 선생님들까지 어찌 당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랴.

"괜찮아. 조금 있으면 맑아져. 자! 들어들 오라구."

미끄러지는 흙을 가까스로 밟으며 자신있게 들어가서, "자! 이제 물장구 좀 쳐볼까? 시이작!" 호기있게 소리친다. 썰렁한 바람이 분다. 튜브만 잡고 있는 아이들. 몸을 움츠린 아이들. 멍청히 쳐다보는 아이들. 드디어 다섯살이나 먹은 해라가 울어제끼기 시작한다.

"선생님 엉엉. 더러워요 엉엉."

쭈뼛쭈뼛 뛰어다니는 소금쟁이를 보자 아예 얼굴이 사색이 되어 몸까지 굳어버린다. 난처해 하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수완이와 병기가 물 속으로 들어와 물장난을 술술 치기 시작하더니 이어 용감한 사인, 은술, 재준, 정원이까지 뛰어들어 튜브를 타보겠다고 서서히 놀이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조금 있으려니 다행히도 논길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줄기 한 곳이 곧 맑아져 나머지 아이들도 마음껏 놀 수 있게 되었다. 오직 해라만이 썰렁하게 굴었지만 회진이, 성현이, 조신한 하람이, 심지어 이제 24개월 난 찬교까지도 흙탕물에 뛰노는 것을 보고는 울음을 그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튜브에 의지하며 논다.

몸이 으스스해지도록 물놀이를 하고 세상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순 자연산 수박을 아삭아삭 깨물어 먹는 모습들이 정말 시골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같다.

푸르게 넘실대는 벼이삭을 바라보며 잡초와 함께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개망초 사이를 우리는 흥이 나서 달린다. 신발을 벗어제끼고 달려보자. 비록 잘 닦여진 시멘트 길이였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큰 행운이었다. 맨발이 되어 마음껏 뛰어보는 일, 이것이 바로 자유아닌가.

조금 올라가니 비탈진 언덕 위로 열매가 하도 많이 열려 허리가 반쯤 굽어진 복숭아 나무가 한그루 있다. 옆에는 흑염소 네마리가 웅기충기 모여 풀을 뜯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음메헤헤..."하고 염소 흉내를 내는 영미선생님. 우리는 그저 씩하고 웃고 말았는데 갑자기 그중 한마리가 고개를 들더니 "음메헤헤헤"하고 대답을 해 오는 것이 아닌가! 멀뚱멀뚱 쳐다보던 아이들이 갑자기 너도 나도 "음메헤" "음메헤헤"

갹갹향이 물씬 풍겨오는 논둑위로 어른이 물러온다.

캠프 첫날밤은 화려한 캠프파이어와 불꽃놀이를 끝을 짓기로 했다. 땅에서 연거푸 터져나오는 불꽃들. 달나라를 향해 하늘을 가르는 로켓처럼 거침없이 솟구쳐 끝내 터뜨리고 마는 소리없이 만개하는 꽃들, 불꽃들. 젖어지는 듯한 폭죽소리와 뒤섞여 범벅이 된 아이들의 자지러진 함성. 미친 듯한 함성을 무시하듯 바스락바스락 속삭이듯 타들어가던

모닥불 주변으로 어느새 아이들은 하나 둘 모여들었다.

“자! 우리 이 불꽃이 다 사그라들기 전에 노래자랑 한번 해볼까?”

저마다 서로 부르겠다고 손을 번쩍번쩍 드는 아이들을 보니 참 자신감있고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몰래 웃음이 난다. 평가는 아이들 스스로가 하고 상으로는 잘한 만큼의 옥수수를 주기로 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상의 의미가 크지 않다. 단지 스스로 평가할 기회가 주어지고 마음껏 소리내어 본다는데 훨씬 더한 재미가 있다. 몇달 전부터 선생님들은 풍물과 함께 국악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꾸준히 가르쳐오셨는데 어쩌나 아이들이 좋아했는지 그간 배워온 실력들이 이 시골마을 끝자락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었다. 구수한 흙냄새 속에 아이들의 입에서 흘러 나오는 우리의 옛가락은 얼마나 흐뭇하고 아름다운가!

더듬더듬 덩따쿵따 덩따쿵따 덩따쿵따.

어깨자락이 저절로 들쭉여진다.

검은 하늘에 수없이 번쩍이는 마른 번개를 쳐다보며 비올 새라 느즈막에야 난다는 찰옥수수를 물고 시골에서나 볼 수 있을만한 모기장으로 하나 둘 들어가며 아이들은 이제야 지친 땀을 살뭇이 껴안고 눈을 감는다.

밤새 비가 내린다. 아니 양동으로 쏟아붓고 있다.

비가 언제 그칠려나, 걱정하며 이른 아침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잠을 깨는데 처마 밑 어미 제비는 긴 못 위에 아슬하게 앉아 재갈대는 세마리 새끼 제비들을 지키고 있다. 어미 제비도 퍼부어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을 것이다. 선생님의 마음처럼.

밭에서 막 따온 호박, 감자로 된 구수한 된장국을 맛있게 먹고 난 아이들은 하릴없이 서성이다 하늘이 가려진 대문으로 모여들어 비좁은 대로 빗물놀이를 한다. 몇가지 안되는 소꿉도 이 시간만큼은 아주 훌륭한 놀이감이 되고 있었다. 빗물을 받는 아이, 젖은 흙을 담은 아이, 그릇을 빗물에 씻는 아이, 비 속에 두손을 벌려 만져보는 아이... 마음껏 비를 맞으며 흙장난을 치고 물장난을 쳐서 무거워진 옷을 끝다시피하며 뛰놀았던 옛생각이 떠오르더니 나도 몰래 웃음이 생긴다.

자연은 아이들의 삶이라던가! 밭에서 수박도, 참외도, 토마토도 따볼 수 있다면 우리의 약속은 깨졌다. 산속 온갖 풀, 꽃, 나무들의 향도 맡아보고 나물도 뜯고 곤충들도 보자던 우리의 작은 소망을 사라졌다. 하지만 실망은 어른들의 몫이었다. 아이들은 어떤 조건, 어떤 곳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놀이가 있고, 또 그 놀이가 재미있기만 하다. 아쉽다고 시시하다고 투덜대며 올라오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

빗속을 뚫고 달리는 차안에서도 차창을 힘껏 때리치며 하얗게 일으키는 물보라를 보면서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와! 폭포다!”

“와! 와!”

우리들의 목소리

애들아, 사랑해!

이경아 / 새롬어린이집

한여름의 더위가 격어 들어가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다. 이젠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지고 찬 바람이 몸에 와 닿는다.

선풍기 몇대로 점풍같은 여름을 지내느라 우리 꼬맹이들은 온 몸에 땀띠가 났다. 하루종일 선풍기를 돌리지만 비 오듯 내리는 땀방울은 몇대의 선풍기로는 막을 수 없었다. 그때의 심정은 '구닥다리 에어컨이라도 있었으면'하는 말을 온종일 입안에서 굴리다가 하루를 보냈었다. 하지만 우리 사랑스런 꼬맹이들은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있는 땀방울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누비고 다녔다.

어른들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을 떨지만 우리 깨끗한 아이들은 그 환경에 맞게 잘 적응해간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깨끗한 마음보다 환경탓을 하고 남탓을 하게 될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어쩌면 그것이 사회에 동화되는 과정이라고 당연스레 생각하겠지만... 무엇인가 답답하다.

오늘은 유난히도 아이들한테 소리를 질렀다. “애,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넌 왜 그리 말을 안듣니?” 언어 폭력으로 때론 아니 항상(?) 도깨비방망이(매)를 드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에 대해 비참해진다. 머리로는 ‘그러면 안돼지.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의 입장을 더 생각해봐야지’하면서도 모자란 난 이성보다 감정을 먼저 내보내 아이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미안한지... “초회야 미안해!

너가 하면 안되는 일을 해서 선생님이 화를 냈는데 다음부터 선생님도 화 안내도록 하고 초회도 하면 안되는 일은 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 풀죽어 한쪽에 앉아있던 아이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을 지어 보이며 “예, 선생미”라고 얘기하고 신나게 뛰어논다.

영재교육 바람이 불어 한참 자연과 더불어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고사리같은 손으로 학습지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아이가 안돼보인다. 이 사회에서 만드는 분위기 때문에 부모들도 서로서로 아이들끼리 경쟁시키는 모습은 가슴이 아프다. 숫자 먼저 알고 한글 먼저 읽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땀땀 경험하고 소중한 꿈을 심을 나이에 친구보다 더 빨리 많이 알아야 한다는 어른들의 경쟁의식에서 우리 소중한 꼬맹이들은 희생양이 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부란 것은 평생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학습이든 인생공부든... 어떠한 한가지만 섭취하면 그 아이는 올바른 서지 못한다. 연령에 맞게 학습도 시키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 학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랑을 사랑하고 아끼는 인성교육이다.

얼마전 대중매체에서 일류대를 졸업한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며 ‘폐륜아’라고 연일 떠들어댔던 것이 생각난다. 이 사건은 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은 사회 전체의 책임일 것이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고통받지 않고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우리 아이들을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어른들이 자각해야 한다. 전체가 될 수 없다면 바로 나부터라도...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나의 아이들이 보고 싶다. 뻘뻘뻘한 우리 광수! 제일 어린 우리 다율이! 조금 암체질을 해 가끔 혼나는 단비! ... 내일은 우리 아이들을 모두 다 꼭 안아줘야겠다. 애들아! 사랑해!

보육계 동향

'96년도 유아교육 학술행사

일시: 1996년 9월 13일(금) 9:00-16:20

장소: 한국어린이육영회 5층 강당

참가비: 20,000원

참가문의: 한국어린이육영회 연구실

(02)425-1672~3

몬테소리 실기 지도자 교육

교육시간: 토요일 / 오전반 10:00-15:00

오후반 16:00-21:00

소수정예 교육 / 실기 개별지도, 일본 실기연수

개강: 9월 14일

문의처: 기독교방송 부설 사회복지교육원

(02)595-6005

특수아 지도자 교육

교육기간: 6개월

(야간, 주3일 월.화.금 9월 13일 개강)

교육내용: 자폐아, 언어장애아, 정신지체, 행동

수정, 조기교육, 정서장애아 등

문의처: 기독교방송 부설 사회복지교육원

(02)595-6005

장애어린이를 위한 감각놀이 팍아 프

로그램

종일반: 오전 7:30-오후 7:00

오전반: 오전 7:30-오후 2:00

오후반: 낮 12:00-오후 7:00

문의처: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91

기간: 9월 15일까지 수시 모집.

언어장애 무료상담

강남언어연구치료소는 언어발달 지체, 말더듬, 발음장애, 음성장애, 뇌성마비, 청각장애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해주고 있다. 월-금요일은 오전 9시30분-12시, 오후 1시30분-2시 30분에, 토요일은 낮 12시까지 운영한다.

문의는 (02)583-0461.

어린이 성폭력 예방책자 배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어린이 성폭력 개념과 피해유형, 증상, 예방대책 등을 친절히 설명해 놓은 『안전하게 자라는 우리 어린이』 소책자를 펴내 배포하고 있다.

이 책은 지난해 성폭력상담소가 접수한 상담사례 중 어린이 성폭력과 관련한 3백7건을 기초로 작성됐으며,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사회기관의 연락처도 상세히 기록돼 있다.

문의는 (02)576-7128.

아이들 그림 전시회

공동육아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한겨레신문사와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의 공동주관으로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7월 21일 '어깨동무 그림놀이 잔치'를 개최한 이후 8월 한달동안 일요일마다 용산가족공원에서 진행한 그림들을 모아 9월 중순경 여의도광장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02)3471-0606, 522-3851

현장학교 교사양성과정 7기 교육프로

그램

기간 및 시간: 1996년 9월 10일-11월 21일

★새 책 소개★

『두껍아 두껍아 세모 집 다오』

저자: 이은화, 이경우 교수(이대 유교과)

판형: 국배판

분량: 24쪽

인쇄: 윌렐러

정가: 5,500원

발행처: (주)한림출판사

이 책은 우리나라 전래동요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에 기초하여 총체적 언어 및 수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예측가능한 동시로 엮은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는 쉽게 그림책을 보고 들으면서 나름대로 읊게 되며 운과 반복이 있는 구절에 익숙하게 된다. 어린이는 동시의 구절 중에서 바꾸고 싶은 단어로 바꿔 보면서 새 동지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 그림책의 세계』

역은이: 이상금 박사(전 이대 교수)

판형: 국배변형

분량: 228쪽

인쇄: 4도

정가: 6,800원

발행처: (주)한림출판사

교과서나 지식의 책은 이성애 호소하는 책이지만 그림책을 포함한 문학의 책은 감성에 호소하는 책이다.

그림책을 어른이 어린이에게 '읽어주는 책'이라고 할 때, 그림책은 어린이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주어야 하고 이를 통해 그림책은 부모와 자녀를 단단히 묶어주는 고리가 된다.

매주 화, 목 오후 7:00-9:30

강의장소: 공동육아연구원 강당

문의: (02)3471-0606, 522-3851

주	강좌내용	강사
1	현장학교 문을 엽니다-강과, 강사 및 수강생 소개, 미래 사회와 공동육아	이기범 (공동대표, 현장학교 교장, 숙대 교육학과)
2	유아교육론	양옥송 (덕성여대 유교과)
3	바람직한 공동육아 그 이념과 방법	정병호 (공동대표, 한양대 인류학과)
4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전래놀이 배우기	김영주 (놀이연구회 '놀이'유아분과장)
5	인지발달과 지체	우남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6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 지체	박은혜 (이대 유아교육학과)
7	아이들의 몸 살리기 -몸으로 표현하는 마음	이영란 (연극인)
8	바람직한 교사론	임현식 (이화여대 교육학과)
9	그림책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유아독서지도와 슬라이드	조준영 (현장학교 교육슬라이드반 강사)
10	함께 크는 우리 아이 -공동육아와 통합교육	김희수 (현장학교 특수교육반 강사)
11	국악과 친해지려면? -몸으로 느끼는 우리 가락	임수정 (국악인, 중앙대 강사)
12	아동영양과 건강	김미령 (원안 장학사회복지관 총무)
13	자유로운 아이로 키우기 -성 고정관념 깨기	김정희 (서강대 여성학 강사)
14	생활 속의 연극, 연극속의 생활-연극의 교육적 활용	최영애 (대전대학교 교수)
15	가족관계와 부모교육	김미령
16	영유아기의 문제행동과 지도-아이들의 심리와 행동의 이해	엄숙경 (원광 아동상담센터 상담연구원)
17	아동철학 -아이들 상상력 키우기	우기동 (성균관대 철학과 강사)
18	아이가 그리는 세상 -아동미술의 이해	정승각 (화가)
19	아동복지	김광용 (숙대 아동복지학과)
20	방과후 프로그램	이주영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부회장, 성자초등학교 교사)
21	강의실을 떠나서	연수희

△식과 △식

여성복지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진단! 한국의 여성복지"

여연에서는 올해 중점사업을 여성복지로 설정하고 복지위원회를 구성, 여성의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연구, 조사, 학습 등을 하고 있다.

여연 복지위원회는 여성복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강좌,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8월 20일(화)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상덕 복지위원장의 「발제1-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여성복지」, 남인순 여연 사무국장의 「발제 2-여성복지 예산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가 있는 후 분야별 발표와 지정토론 등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황이 '여성복지'라는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동아시아 여성NGO 포럼

지난 8월22일(목)에서 24일(토)까지 동아시아 여성NGO 포럼이 열렸다.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식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대만, 타이, 몽고, 중국 등에서 약 300-400명이 모였다. 첫날은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이란 기조연설이 있었고 둘째날은 각국의 국가보고서 발표

와 정신대 문제, 고용안정, 인권 등 3가지 핫이슈에 대한 발표, 워크숍으로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마지막날은 워크숍과 건의문, 결의문을 채택했고 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실행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모든 일정을 마쳤다. 본회에서는 남미영 회장이 참석하였다.

일본 보육대회 참석

7월 21일(일)에서 29일(월)까지 본회 남미영 회장과 임남희 부회장이 일본 자치노의 초청으로 보육대회에 참석했다. 7월 22일(월)에서 25(목)까지는 그동안 지탁연과 계속 교류를 가졌던 성화보육소, 애신보육소, 성애원, 희망의 문, 매그미 보육소 등을 방문하였으며, 특별히 이번 연수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둘러보고 일본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26일(금)-28(일)까지는 보육집회에 참석해서 한국의 보육현황에 대한 발제를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참관했다.

'96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개최

본회와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공동개최한 '96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가 8월 1-2일(수도권-홍원연수원), 2-3일(지방-경주 청소년 수련마을)동안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게 진행되었다.

이번 연수회는 '좋은 보육시설 만들기'란 주제하에 기초발제와 기획강연, 아동과 음률활동, 영아교육·부모교육·미술워크숍·과학교육의 분반프로그램, 교사와 건강, 교사 친교의 밤 등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재교육의 기회가 되었다.

♣ 사람들 ♣

* 충산하셨습니다.

진달래동산어린이집의 김실이 선생님께서 아들을 순산하셨습니다. 지탁연 모든 식구들의 입을 빌어 새 가족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빠른 쾌유 바랍니다.

* 편지 보내주세요.

6월에 일본 성애원 보육소로 장기연수를 떠난 주경남(광주 우리동네 아기동지) 선생님이 조국과 사람들을 그리워한답니다. 따뜻한 편지 한장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大阪市 東淀用區 東湊路 2丁目番5號

保育所 聖愛園

주 경 남

* 보내주셨습니다.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우리 친구까지」 비디오테이프를 사무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 한국여성건축가협회에서 발간한 「여성건축가가 만든 신나는 어린이집(정가 12,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책을 보시기 원하는 분은 본회 사무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고 구입하고자 하는 분은 전화 02)538-0049(한국여성건축가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리출판사에서 그림책 『공쥐땃발 주둥이 땃발』 등 2권을 보내주셨습니다.

- 정민사출판사에서 「영아(0-36개월)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지성애, 김영주, 엄정례, 조정서 공저, 정가 13,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곳에서 귀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도움 삼아 더욱 활기찬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연합회 8월 활동일지 ♣

8/ 1-3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

6 집행위원회

9 편집회의

10 교육연구부 모임

19 집행위 합숙

22 서울경인지역대표자회의

23 여름연수 준비팀 평가회

24 편집회의

26 집행위원회

책임교사분과회의

28 지방지역대표자회의



편집부에서

• 『우리네 아이들』의 발행일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7월 한달은 전국 보육교사 여름연수를 준비하랴, 8월은 휴가도 즐기고 하반기 사업계획 준비하랴 바쁜 나날이었습니니다.

원고를 청탁드린 분들이나 단체도 휴가기간과 겹쳐서 원고가 늦게 도착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네 아이들』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네 아이들』 구독설문조사서에 꼭 응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보다 나은 『우리네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본지와 함께 동봉된 설문조사서에 정성껏 답하신 후 동봉편지봉투에 넣어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확찬 『우리네 아이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이해숙, 김금란, 이정순, 변주남, 황호정, 김삼순, 류미희, 박정아
6개월 구독 : 김미현, 임사용, 신영숙, 유선희, 이은영, 채영애, 최은숙, 양의경
님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본인명의로 아닌 타인명의로 단체명의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강박스런 태풍으로 참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도 하지요?

태풍이 지나가면 바로 또 가뭄이 들어서 논바닥이 갈라지니 말입니다.

머치새 계속 내선 가뭄비가 가뭄해갈에 도움이 되었다니 그나마 다행이지요.

너무 끈적스럽게 달아놓면 여쭙어 싫기도 했는데 이제 벌써 가을이더니 조급은 심습하네요.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래프와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 재물손해·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택, 수익금의 보육사업재투자자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늘푸른대리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PC통신으로 제공하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육시설의 보험가입과 상담편의를 위해 개설했습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고		
원아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2,880원	1인당			
	의료실비	100만원					
배상책임손해 (1인당)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원	2,985원		배상책임보험 학교 경매와 특약요율의 85%적용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교직원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6,510원				
	의료실비	100만원					
재산손해	전물 및 집기비용 (보험가입금액 100만원당)	화재손해 기본보험료(피해요율 36% 적용)				화재보험 일만불건 최종 적용요율의 36% 적용 즉, (화재보험 일만불건 기본요율) x(1±할인 할증요율)+36%	
			1급	2급	3급		4급
		1등지	6220원	9800원	15225원		24225원
		2등지	7200원	12405원	20315원		31235원
		3등지	9200원	15215원	24735원		38200원
		4등지	11305원	18200원	29240원		45650원

(늘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